

석사학위논문

실태분석을 통한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도교수 이 춘 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다 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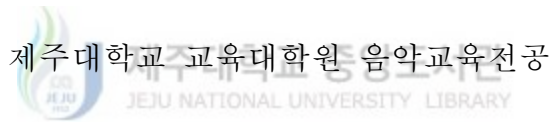
2006년 8월

# 실태분석을 통한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도교수 이 춘 기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4월



제출자 김 다 혜

김다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6년 6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문초록>

## 실태분석을 통한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 다 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 교육전공  
지도교수 이 춘 기

본 연구는 제주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환경적으로 부실한 교육여건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음악 특기 적성교육의 활성화 방안과 효율적 지도방안,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제주도내 30개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역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으로 인해 유목적 표집방법을 사용,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특성으로 여학생이 (78.4%)로 남학생(21.6%)에 비해 높았으며 시작시기는 7-8세 (55.6%)로 나타났다. 동기 또한 자기 스스로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 빈도는 제주지역과 다른 지역 모두 대체적으로 주2회 (2시간)로 나타나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연습은 학생 스스로 하며 제주지역은 개인 연습시간이 40분이상이 (57%)인 반면에 타 지역에는 연습을 하지 않거나 10분 이상 20분이하가(29%)로 제주지역 학생들의 연습시간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연습에 소요 하고 있다 로 나타났다.

셋째, 음반청취 유무 항목에서는 아예 듣지도 접하지도 않는다(54%)로 나타났으며 다른 지역도 (41.6%)로 유사한 결과가 조사되었으며 지도교사 교체 유무항목에서 제주지역은 거의 지도교사 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다른 지역은 교체가 있다 (68.3%)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넷째,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만족도에서는 (71.2%)이 즐겁다고 응답하였고 참여정도와 방학 중 레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배운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특기 적성 교육을 평소학기 와 방학 때도 꾸준히 받고자하는 인식이 강한 것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합주가 개인 실기 연주보다 더 재미있다(50.9%)로 응답하였으며 합주빈도는 가끔 하거나 학

교 주 행사에서만 1-2회 정도만 한다, 선호교재는 스즈끼 교본, 시노자끼, 호만 순으로 나타났으며 레슨 시 교재 병행사용이 이루어짐으로 보아, 타 지역과의 합주빈도 선호교재순서 항목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여섯째, 특기 적성 교육 후 달라진 점은 특기 적성 수업 외에 학교생활에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습이유 또한, 학생들이 바이올린 이 좋아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타 지역에서 학습이유에서 부모의 권유, 바이올린이 좋아서 순으로 나타나 지역별 학습이유는 차이가 있음이 조사되었다.

다음은 본연구의 결과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다.

문제점은 교육시설 및 여건미비, 교사의 전문성과 이해부족, 등이 지적되었으며 개선점은 다른 악기 구비 및 방음, 냉.난방 기능이 되는 전용교실 지원, CD활용 및 시청각 시설지원, 다양한 연주 기회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는 교재 병행사용 및 맞춤형 교재 및 악곡 선택, 교사의 끊임 없는 자기 개발 프로그램,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다각적인 지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연구에서는 음악 특기 적성 교육 활동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을 투입하여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아울러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참여 관찰, 면접들을 통한 질적인 연구들도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 이 논문은 2006년 8 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목 차

I .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3. 연구의 내용 .....	5
	4. 연구의 제한점 .....	5
II .	본론 .....	6
	1. 이론적 배경 .....	6
	1) 기악교육의 의의 .....	6
	2) 기악교육의 필요성 .....	7
	3) 바이올린 기악교육의 가치 .....	8
	2. 특기 적성 교육 활동에 대한 소고 ...	8
	1) 특기 적성 교육 활동의 목적 및 필요성 .....	9
	2)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	
	(1)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 현황 .....	10
	(2) 지도 목표	

### 3. Violin 지도방법에 관한 이론

1)스즈끼의 재능교육	
(1) 스즈끼의 바이올린 교육방법	11
(2) 지도원리 중에 부모와 교사의 역할	13
2)이반 갈라미언의 바이올린 주법과 지도원리	16
(1) 오늘날의 체계의 결합	16
(2) 자세	16
(3) 악기 잡는법	17
(4) 왼팔	17
(5) 운지법	19
(6) 오른손 주법	20

Ⅲ. 실태분석 및 결과	27
결과	39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42
1. 교육환경	42
2. 학생들의 인식	43
3. 제 언	45
* 참고 문헌	46
*ABSTRACT	48
*부    록	51

## 표 목 차

표 1.	조사 대상 학생들의 일반적인 사항	3
표 2.	설문문항내용 및 하위 범주 문항 구성	4
표 3.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	28
표 4.	바이올린을 하게 된 동기	28
표 5.	바이올린 학습빈도	29
표 6.	바이올린 학습 방식(연습형태)	30
표 7.	연습 시간	30
표 8.	청취 유무(새로운 곡 시작 시 음반 청취 유무)	31
표 9.	바이올린 지도 교사의 교체 유무	32
표 10.	바이올린 음악 수업의 만족도	33
표 11.	바이올린 참여 정도	33
표 12.	선생님과의 대화 및 질문 유무	34
표 13.	방학 중 레슨 유무	34
표 14.	바이올린 배우고 나서 달라진 점	35
표 15.	합주 빈도	36
표 16.	합주와 혼자 연주 때의 느낌	36
표 17.	콩쿨 대회 참가하고 싶은 생각	37
표 18.	선호 교재 순서	37
표 19.	바이올린을 왜 배우는지의 견해(학습이유)	38

## 그림 목차

그림 1.	왼손 손가락의 위치	18
그림 2.	제 1 position 손가락 모양	18
그림 3.	왼손 손가락의 위치	19
그림 4.	오른손 손가락의 운동	22
그림 5.	오른손 손가락 수평운동	22
그림 6.	오른손 손가락 축전 운동	23
그림 7.	활을 중앙 가까이 둔 경우 “네모꼴”	24
그림 8.	활 밑에 있는 경우 “세모꼴”	24
그림 9.	활 끝에 있는 경우	24





## 표 목 차

〈표-1〉 조사 대상 학생들의 일반적인 사항 .....	3
〈표-2〉 설문문항내용 및 하위 범주 문항 구성 .....	4
〈표-3〉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 .....	28
〈표-4〉 바이올린을 하게 된 동기 .....	28
〈표-5〉 바이올린 학습 빈도 .....	29
〈표-6〉 바이올린 학습 방식(연습형태) .....	30
〈표-7〉 연습 시간 .....	30
〈표-8〉 청취 유무(새로운 곡 시작 시 음반 청취 유무).....	31
〈표-9〉 바이올린 지도 교사의 교체 유무 .....	32
〈표-10〉 바이올린 음악 수업의 만족도 .....	33
〈표-11〉 바이올린 참여 정도 .....	33
〈표-12〉 선생님과 대화 및 질문 유무 .....	34
〈표-13〉 방학 중 레슨유무 .....	34
〈표-14〉 바이올린 배우고 나서 달라진 점 .....	35
〈표-15〉 합주 빈도 .....	36
〈표-16〉 합주와 혼자 연주 때의 느낌 .....	36
〈표-17〉 콩쿨 대회 참가하고 싶은 생각 .....	37
〈표-18〉 선호 교재 순서 .....	37
〈표-19〉 바이올린을 왜 배우는지의 견해(학습 이유) .....	38

## 그림 목차

<그림-1> 왼손 손가락의 위치 .....	18
<그림-2> 제 1 position 손가락 모양 .....	18
<그림-3> 왼손 손가락 위치 .....	19
<그림-4> 오른손 손가락 운동 .....	22
<그림-5> 오른손 손가락 수평운동 .....	22
<그림-6> 오른손 손가락 축전운동 .....	23
<그림-7> 활을 중앙 가까이 둔 경우 “네모꼴” .....	24
<그림-8> 활 밑에 있는 경우 “세모꼴” .....	24
<그림-9> 활 끝에 있는 경우 .....	2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모든 생물은 그 생명이 시작된 다음 초기 과정에서 짧은 기간에 빠른 속도로 성장 발달 한다. 갓 난 땅아지가 벌떡 일어나는 모습이나 비가 온 후 죽순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인간의 성장도 예외일 수가 없고 생후 몇 년간의 짧은 성장기의 경험이 한 인간의 삶에 중대하고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러한 시기가 유아기라 생각한다. 음악교육에서 음악적인 성장이 유아들의 성장 유형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음악교육은 유아의 발달 단계와 음악적 능력을 감안하여 적절한 교육적 환경 안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집안의 화초도 비료를 주고 햇빛을 쬐이고 잘 보살펴 주지 않으면 시들어 죽어버리듯 유아들도 적당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잠재능력을 때맞추어 일 깨워주지 않으면 그 재능은 상실되고 만다.<sup>1)</sup>

학교 음악교육은 음악을 통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표현하는 미적인 능력을 통해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말을 하지 않아도 느끼게 해주며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음악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쳐 삶의 가치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21세에는 새로운 사회와 다양한 시대적 변화를 통해 한국 음악교육의 미를 재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것을 모방한 것이 많고 공교육이 그 자리를 사교육에 내어 준채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닌, 선택된 몇 사람에게 속하는 연주자만을 위한 교육을 해왔다.<sup>2)</sup>

---

1) 최시원(1995), 「음악 교육 어떻게 할것인가-세계를 향한 음악교육」, 출판사 다라, p.18.

2) 한현주(2006), “초등학교 특기 적성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서울, 경기 일부지역” 중앙대학교 대학원, p.18.

그러나 이제는 전문성이 있는 연주자들을 위한 교육과 음악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음악애호가 양성교육 두 교육 모두 음악 속에 잠재되어있는 미적 감각을 감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추구해야한다.

현대 학교 교육에 있어서 음악교육은 더욱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특히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음악 특기 적성 교육활동이 새롭게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 개개인의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교육목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경감이라는 경제적 욕구에 부합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강화 된 것이라 본다.

근래에 와서는 음악을 장래에 전공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취미활동으로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아졌고 딱딱한 개인교습보다 여러 아이들과 어울려서 연주를 통해 즐거움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룹레슨을 많은 어린이와 학부모들은 선호하고 있다.<sup>3)</sup>

이렇듯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선호하는 특기 적성 교육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 개발 및 취미와 특기 신장을 위하여 설정된 활동이며 이 활동은 사교육비 절감과 과외활동을 학교 내로 끌어들이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누구나 음악을 접하고 스스로 연주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특기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음악 특기 적성 교육활동이 실시되고 있으나 그 실체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아직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정규과정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소질개발, 잠재력 발견을 위해 학원 과외나 고액 개인지도를 지향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학교의 무관심과 체계적이지도 못한 시스템의 운영 등으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녀의 특기 적성교육의 방법으로써 [violin / 현악부] 학생들의 활동 상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환경적으로 부실한 교육여건 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지도방안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한다.

---

3) 이흥수(1974),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 음악 출판사, p.27.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주지역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05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실시하였다. 질문지의 배부는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배부하였다. 질문지는 총 200부가 배부되었으며 그중 매우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2개 이상 표기한 설문지들을 제외한 125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특기 적성 교육 violin부에서 배우는 아동들의 그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 분석한다.

2)조사대상

a.조사기간: 2005년 4월 1일~ 2005년 8월30일까지

b.조사대상: 30개교, 학생 200명

총 200부중에 그중 125부의 설문을 회수하였다.

조사 대상 학생들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1> 과 같다.

<표-1> 조사대상 학생들의 일반적인 사항

성별	빈도	%	경력 (학습 년 수)	빈도	%
남	27	21.6	1년	46	40.7
녀	98	78.4	2년	41	36.3
합계	125	100	3년 이상	26	23
			합계	125	100

\*결측치 n=12

조사대상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1>나타난 것처럼 총 125명중에 여학생이 (78.4%)로 남학생의(21.6%)에 비해 높았다. 학습 년 수로는 1년(40.7%), 2년 (36.3%), 3년 이상(23%)순으로 나타났다.

## 2-1) 조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 작성은 연구자의 현장 1차 설문 조사와 특기 적성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의 설문지와 석문주와 음악교육모임 (2001) 에서 작성한 「음악과 수행중심 평가」를 참고 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재 작성 하였으며 전문가에게 주제와의 적합성을 재검토 받아 문항 수정 후에 이를 지도교수의 지도를 통해서 작성하였다.

설문지 문항 내용 및 하위 범주 문항 구성은 특기 적성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부문과 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부문으로 제시되었다.

〈표-2〉 설문지 문항 내용 및 하위 범주 문항 구성

내용	하위 범주 문항	문항 번호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배경	학생의 성별, 학습 년 수, 학년	1, 2, 3
초등학교 특기 적성 교육실태	시작시기, 동기, 주당 수업시간 일 수, 연습시간, 수업장소, 지도 교사의 교체유무, 방학 때 레슨 유무, 수업참여도	1,~7, 8,10~12
특기 적성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교육 후 달라진 점, 질문내용 답변 시, 교육적 효과, 교육의 필요성, 교재 선호도, 수업에 대한 만족도,	9,11,13~19

또한, 본 연구의 조사도구의 타당성은 내용 타당성의 측면에서 점검 하였다.

내용의 타당성은 전문가를 통해 논리적 사고와 내용의 주관적인 타당도를 측정 하여 검증된 자료이다.

## 2-2) 자료 처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통계 처리 하였다.

1) 조사 대상 학생들로부터 회수된 자료는 질문지의 각 항에 관한 빈도를 산출

하고 백분율로 환산하여 전체 학생들의 특기 적성 교육에 대한 교육 실태와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2) 학생들의 성별, 경력, 학년에 따른 바이올린 특기 적성 활동에 대한 실태와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모든 통계분석은 컴퓨터를 이용해 복잡한 자료를 쉽게 통계처리 하는 분석 프로그램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dow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파악하기위하여 내용 타당도를 구하였다.

### 3.연구의 내용

(1) 여러 가지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악교육 의의 및 특기 적성교육의 특성과 목적 을 알아본다.

(2) 설문조사를 통하여 음악 특기 적성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로부터 현황과 활동의 애로점 및 미비점등을 파악한다.

(3) 스즈키 재능교육이론 및 이반갈라미언 주법과 지도 원리를 알아본다.

(4) 설문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향 지도방을 제시 한다.

### 4.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는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제주 시 소재 학교 중 30개교를 설문조사하였고, 학교 설문지는 총 200부였다. 그 결과 교사인 경우, 비협조적인 태도와 학교 측의 조사 거부로 인해 교사 설문조사가 총 30명에 그쳐 통계 처리 시 신뢰도와 유효percentage(%)에 대한 자료 부적합으로 인해 교사들에 관한 통계처리는 제외시키도록 한다.

## Ⅱ. 본 론

### 1.이론적 배경

#### 1) 기악교육의 의의

음악교육은 음악의 심미적 체험과 그러한 체험을 통하여 창의적인 음악능력의 향상과 풍부한 음악적 심성 계발을 목적으로 한다. 즉 심미적 체험은 음향의 감동과 음악적사고, 음악미적 통찰의 과정을 통하여 음악의 총체적 표현성을 향유할 수 있다. 음악의 체험인 기악활동을 통하여 풍부한 음악적, 정서를 기르고 음악을 애호하게하며 음악의 내면화를 통해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고 더 나아가 음악표현의 기초 능력을 습득하고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악기연주를 할 때 학생들은 노래 할 때보다 더욱 성취감을 느끼며 학교에서 정식으로 배우지 않아도 노래는 할 수 있지만 악기는 배운 경험이 없으면 잘 할 수 없다. 악기의 연주가 노래처럼 저절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므로 오래전부터 음악 교육학자들은 기악교육의 효과적인 교수법과 악기선택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음악은 어느 누구에게나 지적, 감성적으로 필요하고 인간의 몸과 마음을 잡아주는 학문이며 예술이다. 기악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미적권한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지 않는 다는 것 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산수를 배울 필요가 있듯이 음악도 배울 필요가 있다. 아인슈타인같이 되려고 산수를 배우는 것 이 아니듯이 세계적인 연주가가 되려고 음악을 배우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sup>4)</sup>

---

4) 한정희(2000), 「음악과 행복」, 도서출판 :처용, p.86.



## 2) 기악교육의 중요성

기악은 가창과 함께 음악적인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며, 적절한 기악체험은 음악적 자신감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 음악적 자아실현을 가능케 한다. 또한 기악은 음악과 학습지도과정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가창이나 합창에서 반주의 역할은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직접적인 악기 연주 활동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창조적 욕구를 자극하여 음악적 즉흥성과 음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악기의 발음조작 과정에서 갖게 되는 학습자의 흥미는 그대로 기악에 대한 강한 동기 유발로 이어지며, 가창표현에 열등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음악적 자신감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해준다.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욕구이다.<sup>5)</sup>

이를 감안하여 악기에 대한 연주의 기술로 이끌어 줌으로써 기악에 대한 흥미를 배양시킨다. 이는 청각과 시각뿐 만아니라 근육 감각과 운동감각도 수반하여 경험시킨다. 악기연주는 가곡이 가사의 구체성에 기인한 것과는 달리 순수한 음악만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으로서 기악의 특징이 있다. 예컨대 피아노를 치면 그에 대한 음정을 들을 수 있으며 많은 감각을 통해 이를 직접 경험한다. 이는 음악을 경험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처음에는 음악이 지닌 구성미와 형식미의 감각을 배양하는데 적합한 것을 선택할 것이며 가락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체득해야 하겠다.<sup>6)</sup>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들이 악기로 자기표현을 하고 체험함으로써 음악연주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학교 음악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sup>7)</sup>

기악은 가창과 함께 음악 표현의 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리듬감을 기른다.

---

5) 이용일(1993), 「음악 교육해설」, 서울 :현대 음악사, p.192.

6) 유덕희(1998), 「예능 교육」, 서울:한국 방송 대학교 출판부, p.268.

7) 이성삼(1982), 「음악 교수법」, 서울: 세광음악 출판사, p.98.

8) 새교실 8호(1998), 「기악합주」, 대한 교육 연합회, p.9.

둘째, 가락의 흐름을 느껴 음악적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

셋째, 프레이즈 감을 기른다.

넷째, 화음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다섯째, 음정 감을 기른다.

여섯째, 창조성을 기른다.

일곱째, 사회성[협동]을 기른다.

여덟째, 물건[악기]를 소중히 다루는 태도를 기른다.<sup>8)</sup>

이처럼 악기연주를 통하여 창조적 욕구와 음악적 개념을 형성하고 더불어 음악의 생활화를 통해 사회성을 배우고 인간관계형성을 해 나아간다.

### 3)바이올린 기악교육의 가치

어린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시기는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만 5세 정도가 적당하다. 이 시기는 절대음감이 생기는 시기이므로 바이올린을 교육시키기 좋은 시기이다. 바이올린은 조화로운 전인교육에 도움이 되며 바이올린 교육은 음악기능 및 소질개발에 긍정적이며 정서안정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다. 바이올린은 여러 명이 그룹을 이루어 서로 즐기며 연주하며 자신의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기 적성교육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공동생활을 하고 합주를 해봄으로써 협동심과 폭넓은 음악의 이해를 기를 수 있다.<sup>9)</sup>

## 2.특기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소고

특기 적성 교육활동은 1998년 까지 사용되어오던 ‘방과 후 교육활동’ 명칭을 1999년부터 ‘특기 적성 교육활동’으로 변경한데에서 연유된다. 방과 후 교육활동은 교육개혁위원회가 1995년 5월에 발표한 제 2차대통령 보고서에서 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제안되어 같은 해 2학기부터 학교의 교육 활동으로 본격 도입되었

9) 오인교(2003), “초등학교 특기 적성 지도를 통한 바이올린 능력 향상방안”, 인천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12.

다. 1999년 2월에 특기 적성 교육활동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성격도 다소 달라지기는 했으나, 실재는 이전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오고 있다.<sup>10)</sup>

### 1) 특기 적성 활동의 목적 및 필요성

특기 적성 교육활동은 학생의 소질, 적성개발 및 취미, 특기를 신장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기 적성 교육과 연계한 동아리중심의 학생문화를 창달하며,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교의 시설 및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방과 후에 아동의 흥미, 취미, 학교 실정과 지역특성에 알맞은 각종 교육 활동을 활성화 하여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을 통해 아동들의 소질개발 및 특기신장과 안정된 정서함양,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경감은 물론 학교의 인력 및 시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방과 후 교육활동의 필요성이 절실하다.<sup>11)</sup>

### 2)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초등학교 음악교육의 목표는 음악의 생활화를 목표로 누구나 음악을 즐기고 간단한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것이다.<sup>12)</sup>

기악교육은 청각, 시각 뿐 아니라 근육감각, 운동감각이 수반되어 음악을 체험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악기를 보고, 듣고 악기에 대해 알아가는 것으로 악기의 기술적인 테크닉과 좋은 연주자 양성을 강조하는 기악교육이 아닌 악기를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고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기악교육이어야 한다.

바이올린은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는데 있어서 적합한 악기로 학교 안에서 배움으로써 다양한 음악적인 경험을 하게 한다.

---

10) 김재복(2000), “초,중등학교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향”, 인천교육 대학교, p.2.

11) 한국 교원 총 연합회(1999),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혁신안 실태 및 개선방향」 서울: 교육정책 연구소, p.88.

12)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과과정 해설」, p.51.

### ① 바이올린 특기적성 교육 현황

현재의 바이올린 특기 적성교육의 상황을 본다면 한 학교에서 주2회-3회 레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강료는 25000~35000원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며 강사는 거의가 전공 강사로 외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교육위원회가 관리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환경에서 우월한 아동들은 여전히 개인레슨을 받고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은 학교나 사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한 학교에서의 바이올린 대상자는 10~20명 내외이며 영어, 컴퓨터에 비해 많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특히나 특기 적성 교육대상자가 적을 경우는 보조금이 지원되어 강사들의 사기를 그나마 유지시켜주는 실정이다. 지방에 따라 지원금과 월급의 상한선을 정하는 교육부의 정책에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② 바이올린 지도목표를 살펴보면

첫째, 바이올린의 특성을 알고 정확한 주법으로 연주하는 능력을 기른다.

바이올린이 어떤 악기이며 바른 연주법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익숙하게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는 일이다.

둘째, 연주활동을 통해 자기가 가진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독주 또는 합주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비교를 통한 발전가능성을 더욱 고조시킨다.

셋째, 연주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친구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독주회와는 달리 합주는 각 개인의 연주 능력보다 전체적인 조화를 우선해야하기 때문에 서로 협동하고 보완해주면 도와주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넷째, 꾸준한 연습을 통하여 음악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음악을 생활화 하게 한다.

처음에 배울 때는 아름다움을 느끼기 보다는 호기심에서 악기를 연주하게 되지만, 점차 익숙하게 연주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고 더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듯 바이올린 지도의 목표는 악기를 통한 연주능력 배양에서부터 소질계발과

협동심 및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 해줄 수 있다 는 점 에서 지대한 의의를 갖는다.<sup>13)</sup>

### 3. 스즈키의 재능교육

조기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한 음악 교육자중 한 사람인 스즈키는 일찍이 7 세 이하의 취학 전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룹지도 형태의 재능교육을 실시하였다. 그의 이론은 인간은 모두 훌륭한 두뇌를 부여받고 태어났다고 하며 다만 두뇌는 훈련 하는 방법에 따라 자라면서 능력의 차이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의 영향으로 인해 능력의 발달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두뇌를 발달시켜 능력으로 발전시키는 교육을 재능교육 이라 일컬었으며 스즈키 재능교육의 시발점을 언어교육으로 보았다.



#### 1) 스즈키의 바이올린 교육방법

모국어식 교육방법인 이것은 인간의 환경의 산물이라는 신조에서 입각한 것으로 어린이의 언어 습득 과정과 같은 환경을 바이올린 지도에 적용하여 청음훈련, 암기훈련, 반복학습, 어머니의 도움으로 어린이의 흥미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어린이의 심리에 잘 맞도록 프로그램 한 교육방법이다.

스즈키 도 18살 때 바이올린을 배울 목적으로 독일에 유학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가 부딪친 첫 시련이 바이올린을 배우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언어의 문제였다. 그러나 독일의 어린이가 3살의 나이에 독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란 그는 깨달음을 얻어 어린이에게는 그들의 주위환경을 흡수하는 무서운 잠재능력이 있음을 발견, 만약에 어린이들에게 이와 같이 어려운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음악도 이 시기에 가르치기 만하면 높은 수준의 연주기능을 발

13) 한국 교육 과정 평가 연구원(2000), 「방과 후 특별활동 지도방안」, 교육 평가 연구소, p. 26.

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다.<sup>14)</sup>

언어가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배워지듯이 어린이에게 음악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면 음악교육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어린이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기 전에 그 어머니에게 먼저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개인레슨보다 그룹이 함께 연주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며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다 같이 함께 연주하도록 한다.<sup>15)</sup>

유아기로부터 녹음된 음악을 자주 들려줌으로써 아동의 말을 배울 때 읽고 쓰기 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을 배우는 원칙과 같이 우선 녹음된 음악을 자주 들으면서 청음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어려운 기호의 나열인 악보를 먼저 읽어 흥미를 잃어버리기보다는 자주 반복되는 듣기로 자연스럽게 곡을 암기해 연주하도록 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독보를 지도한다. 이러한 지도 원리를 음악가이면서 음악교육학자로서 올바른 음악교육을 위한 코다이 원리를 주창하였는데 그의 음악적 교육 원리 중 음악학습은 조기에 시작되어야하고 음악 언어는 모국어와 비슷한 방법으로 학습한다고 하였다.<sup>16)</sup>

또한, 스즈키는 주1회 이상 상급반과 초급반 어린이들이 모여서 함께 연주하도록 하였다. 높은 수준의 곡을 연주하는 동안 초급반 어린이들은 상급반 어린이들의 연주를 경청하고 자세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차례로 연주된 곡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곡 까지 내려오면 같이 연주하는데 끝 무렵에는 적게 10명 정도에서 많게는 3000명 까지 동시에 연주한다. 이렇듯 그의 바이올린 교수법 중에 합주는 다음과 같은 교육효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초급반 어린이는 상급반 어린이들의 연주를 듣고 커다란 자극을 받는다. 강한 동기를 유발하게 된다.

둘째,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수준의 곡을 연주하고자 하는 강한 성취동기가 생긴다.

---

14) 심영내(1999), “바이올린 그룹지도 방법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울: 중앙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8.

15) 최시원, 전개서, p.29.

16) L.Stone,M(1981), 「Kodaly Method Context」 ;Greatly an envionment for Musical Learning, p.6.

셋째, 아직 경험하지 않은 곡을 미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넷째, 상급반 어린이로부터 음악적 영향을 받는다. 운궁이라든지 표현법, 비브라토 등 특히 눈에 쉽게 띄는 기술적 영향을 받는다.

다섯째, 부모를 비롯한 여러 사람 앞에서의 연주기므로 자부심과 성취감을 맞본다.<sup>17)</sup>

## 2)부모와 교사의 역할

스즈키 는 이 교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이올린을 처음 배우러 오는 어린이를 곧바로 지도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지도이념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곡이 완성 될 때 까지 어머니 또한 배운다. 개인 레슨이나 매주 열리는 합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처음 레코드를 듣게 되는 그 시간동안 직접 악기를 배워야한다.

어린이의 레슨 때에도 메모와 곡을 공부해야하고 계속해서 어린이의 학습을 격려하며 인내심 있는 반복을 기초로 도와주면서 가정에서도 스스로 악기를 배우고자하는 욕구가 나도록 환경을 조성 해주어야한다.

미국의 스즈키 이론에 대한 박사인 Elizabeth Mill은 어머니에게 10개 항목에 관한 당부를 하고 있다.

첫째, 반드시 레슨에 어머니가 참석해야한다. 어머니는 레슨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데리고 오고 가는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함께 레슨의 과정을 파악하고 집에서는 아이의 스승이 되어야한다.

둘째, 레슨 때 곡을 녹음해 두었다가 수시로 어린이에게 들려주어 레슨을 기억하도록 돕는다. 즉, 레코드를 수시로 듣게 한다던가, 레슨 할 때의 중요한 사항을 녹음하여 듣게 하는 등 가정에서도 레슨의 연장이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가정에서 어린이와 함께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넷째, 항상 레코드를 들려준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생활 속에 음악이 흐르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

17) 황경익(1983), “스즈키 메소드에 관한 연구”, 서울 :연세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p.18.

다섯째, 레코드에 맞추어 반복연습을 하여 암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한다.

여섯째, 악기 관리에 신경을 써 연습 중에 악기로 인해 연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해 두어야한다.

일곱째, 동기유발을 위해 어린이들과 음악회나 연주회에 자주가 본다.

여덟째,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라, 우열의차는 항상 존재하지만 다그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홉째, 스즈키 교육방법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이념을 지도하는데 적용한다. 어머니가 스스로 교육방법을 신뢰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열 번째, 꾸짖지 말고 격려한다. 부모입장에서 볼 때 다소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꾸짖거나 화내기 보다는 사랑과 격려로 안아주어야 한다.<sup>18)</sup>

교사는 우수한 연주기술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학생과 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아야하며, 학생과 부모의 중재자로서 환경조성의 문제, 흥미 있는 레슨 시간의 진행 등 학생에게 둘러싸여있는 심리적,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지도하는 세심함을 가져야한다.

또한 교사는 오로지 학생들에게 연주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성실한 자세와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내는 노력을 가져야한다. 특히 어린이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특성 때문에 교사의 가르침과 행동은 절대적인 본보기가 된다.

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즐겁게 임한다. 유쾌하고 즐거운 태도는 교사가 가져야할 가장 귀중한 요소이다.

둘째, 열성적으로 임한다. 열성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 되도록 자제력을 가지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용기를 주어라. 가능성을 주는 진정한 격려는 언제나 바람직하며 학생들을

---

18) 심영내,진계서, p.9.



뒷받침해 주고 용기를 갖도록 하여야한다.

넷째, 인내하라.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지도할 때 때로는 힘들 경우와 학생들에게 혼란 중 생길 수 있는 좌절감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심 많은 교사는 부정적인 표시가 학생들에게 나타나도 인내를 가지고 침착하게 평온을 유지한다.<sup>19)</sup>



---

19) James W. Bostine(1995), 「성공적 피아노 교수법」, 서울: 음악 춘추사 ,p.9.

## 2) 이반 갈라미언 의 바이올린 주법과 지도의 원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가이자 많은 유능한 violin인재들을 배출시킨데 공헌을 한 이반 갈라미언의 교수법이 편찬되었다. 그는 오랜 세월 연주와 지도를 하면서 가장 최적의 바이올린 주법과 지도 원리를 적어놓았는데 이 책은 1948년에 그의 문하생들의 요청에 의해 쓰여진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오늘날의 체계의 결합

오늘날 교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찬성 할 수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그는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였는데 그 첫째는 모든 연주자나 또한 바이올린 연주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엄격한 규칙에 따르게 하려는 현대의 주장이다. 규칙이라는 것은 본래 학생을 위하여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법칙을 권위화시키기 위하여 학생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엄격한 규칙을 만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절대로 불변의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경우나 어떠한 특정한 경우에도 통용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는 법칙을 약간 만드는 것이다.

[올바르다]는 것은 개 개인학생에게 자연스러운 것을 말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것이야 말로 쾌적하며 또한 효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종래의 수많은 부자연스런 기술에 관한 이론과 그리고 현재에도 잇달아 생겨날 새로운 이론들이 학생을 부자연스럽게 하도록 강요해온 결과, 자연스럽게 악기를 다루는 법을 그릇되게 한 것을 생각하면 한탄스러운 일이다.

둘째는 바이올린 기술이 개개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할지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상호 유기적인 관련 중에서 그것들이 모두 상호관계의 입장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바이올린 기술의 순수한 신체적인 면만을 일방적으로 강조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뇌의 명령과 육체의 반응과의 관련을 될 수 있는 한 신속히 또한 정확히 하는 능력 속에서 찾아야만 한다.<sup>20)</sup>

### (2)자세<sup>21)</sup>

20) 이반 갈라미언(1993), 「바이올린 주법과 지도원리」, 심상균 역, 서울:음악 춘추사, pp.1-2.

몸, 팔, 그리고 손과 악기와의 관계는 모든 연주가 편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결국 연주에 결부한 자세 또는 근육 운동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서는 법과 앉는 법을 엄격히 규정 하는 것보다 연주자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쪽이 중요하다. 연주하는 도중에 몸을 지나치게 움직이는 것은 피해야 된다.

한편, 학생의 몸 움직임을 일체 그만 두게끔 강요하는 교사처럼, 너무 극단적인 것도 권할 수 없다.

어느 정도의 자연스러운 몸의 놀림은 있는 것이며 그것이 몸과 연주와의 협조를 도와 리듬이나 악센트의 느낌을 돕는다. 결코 완전히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 (3)악기 잡는 법

악기 잡는 법에 관해서도 엄격한 규칙이 있을 리 없다. 어떤 사람은 악기를 오로지 어깨와 턱으로 떠받치고 그것으로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왼손에 악기를 떠받치고 쇠골위에 얹고서 턱을 자리바꿈에 적극적인작용, 즉 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깨 받침은 음을 흡수 하는 일이 없도록 악기의 뒤판에 닿지 않는 형태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다. 연주를 할 때 에는 악기의 머리[scroller head]높이는 낮은 것보다 높은 편이 좋다. 머리를 약간 높게 하면 악기의 무게가 연주자의 목이나 어깨 에 걸리고 머리가 낮으면 악기의 무게가 왼손에 치중되어 활의 지판 쪽 으로 미끄러지기 쉽다.

### (4)왼팔

옛날 주법으로는 모든 학생에게 왼 팔꿈치를 훨씬 오른쪽으로 넣을 것을 요구했다. 팔이나 손가락이 긴 연주자가 이 방법을 따르면 ,손가락은 지판의 G선 쪽 이 너무 경사져서 모양이 나쁜 굴곡을 보일 것이다. 손가락 끝이 닿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 줄에 닿지만 태반은 오히려 손톱 없는 쪽이 아니고 손톱 쪽이 줄에 닿게 된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손가락의 움직임, 특히 비브라토 에 매우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오른쪽으로 팔꿈치를 놓도록 하는 것이 꼭 올바른 것만은 아니라는 것

---

21) Ibid., pp.11-12.

이며 결국 손가락이이야말로 결정적 요인으로 결정될 것이다. 손가락의 여러 가지 운동에 가장 바람직한 조건을 취 할 수 있도록 놓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모든 것- 엄지손가락, 손, 팔-은 제각기 자연스러운 위치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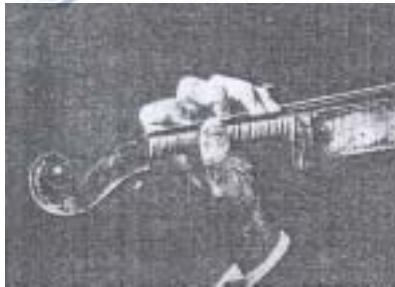
팔꿈치는 결코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 위치는 있다 해도, 손가락이 줄에서 줄로 옮겨짐에 따라 악기의 아래쪽에서 팔꿈치의 위치는 변한다.

손목도 현에 대는 손가락의 위치에 좌우한다. 손목으로부터 앞, 좌우 어느 쪽에도 굽어서는 안 된다.

손은 악기의 목 (neck) 으로부터 멀리해서도 안 된다. 목 양쪽에 가볍게 대고, 손 전체의 이동을 도우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악기를 딱 눌러도 안 된다. 즉, 붙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긴장이 생겨서 손가락, 손, 팔의운동의 자유가 방해되기 때문이다.

손의 위치가 지판의 면보다 어느 정도 높고 낮은가는 각자의 손이나 손가락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sup>22)</sup>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1] :왼손 손가락의 위치: 손가락은 음표에 따라서 네모꼴형의 경우에도 뾰은 위치의 경우에도 모든 손가락의 끝에서 수직으로 내린다.

---

22) Ibid., pp.11-15.



[그림-2] : 엄지 손가락은 각 손가락의 반대에서 누를 기능을 갖는다.



[그림-3] : 손끝이 현에 접촉하는 점

손가락의 위치와 각도 따라 음정을 좌우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특히 엄지손가락은 현의 지나친 압력이나 악기의 목을 붙잡을 때는 대개 이 손가락이 원인이 되며 근육이 굳어지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왼손의 기능을 둔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너무 지판에서 돌출하게 해서는 안 되며 똑바로 뻗거나 굽혀서도 안 되고 악기 목의 곡선에 따르는 편이 좋을 것 같다.

#### (5) 운지법

운지법에는 음악적인 것 과 기술적인 것 두 가지가 있다. 음악적으로 는 충분히 울려서 명확해야 하고 그 프레이즈가 가지고 있는 표정을 가장 아름답게 전해야 되며, 기술적인 면으로는 패키지를 될 수 있는 한 쉽게 편히 연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서로 일치 하지 않는다. 쌍방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음악적인 추구가 안이성 때문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감정표현이 먼저 다루어져야 하며, 2차적으로 연주는 편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칙이 자주 무시 되고 있다. 특히 손 움직임으로서는 부드럽지만 음이나 감정 표현에는 적합지 않은 여러 가지 운지법을 과시해보이려는 현대의 교

육자나 편집자들에 의해서 종종 무시되고 있다. 운지법의 분야에 있어서는 다음에 제시하듯이 왼손의 기술향상을 촉진 할 수 있게 많은 연구와 개량이 이루어져 왔다.

첫째, 짝수 포지션을 많이 사용할 것

둘째, 반음에 의한 샤프팅

셋째, 개방 현을 사용하여 포지션을 변경할 것

넷째, 개선된 반음계의 운지법

다섯째, 왼손가락의 구조에서 바깥쪽으로 손가락을 펴 새로운 타입의 손가락의 확장

여섯째, 손가락의 확장이나 수축에 기초로 한 새로운 운지법, 나아가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손 자체의 재조정의 필요성 등이다.<sup>23)</sup>

바이올린 연주로 전통이나 개인의 버릇에 사로잡혀서 그 포로가 되어버린다면 음악성도 굳어버린다. 상투적인 것으로 되어 버리는 것만큼 나쁜 것은 없다. 똑같은 운지법을 고집하는 것도 틀에 박혀 버리고 그 연주에서 자연스러운 음색을 빼앗아 버린다. 그리고 즉흥에 관한 연주도 방해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운지법의 문제 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연주 태도 전반에 관해서 묻게 되는 것이다. 운지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요인이며 결코 무시해도 좋은 것은 아니다. Fingering 나 Bowing을 쉽게 바꾸게 하여 굳어진 틀에서 벗어나 연주에 대한 자세를 더욱 탄력성 있고 자주성을 얻도록 하게 한다.<sup>24)</sup>

#### (6) 오른손의 주법

바이올 리스트에게 있어 귀찮은 문제의 대부분은 오른손의 주법이다. 오른손의 자연스런 움직임이 보우 잉의 기술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네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탄력성의 구조, 둘째, 활을 잡는 법, 셋째, 팔, 손, 손가락의 신체적 운동, 넷째, 일직선의 운궁법

---

23) Ibid., pp. 29-30.

24) Ibid., pp.30-35.

위4사항 중에 탄력성의 구조와 신체적 운동, 과 일직선의 운궁 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①탄력성의 구조: 활의 기능을 알려면, 오른팔의 테크닉은 모두 탄력성의 구조에 기초를 둔다는 것을 이해하여야한다. 그것은 기계의 용수철과 매우 닮은 형태로 반응하다. 인공적 탄력성 (활털 의 탄력이나 활대의 유연성) 이며 자연적인 것은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엄지손가락 등의 관절) 활이 만약 모두 단단히 고정된 것으로 제작된다면 음이 얼마나 나쁘고 보우 잉의 여러 가지 형의 대부분이 얼마나 연주 불가능하게 되는지 상상하기에 어렵지 않다.

아무리 탄력이 뛰어난 활이 주어져도 자연의 탄력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진정한 음악구성을 할 수 없다. 어깨로부터 손가락 끝에 이르기 까지 기능의 유연성, 탄성은 없어서 안 되는 것으로 없으면 음색은 딱딱하고 또는 천하고 보우 잉은 서투른 컨트롤이 없는 것이 된다.

팔, 손, 손가락의 탄력은 걸을 때 발이나 발가락의 유연성과 똑같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야하며 보우잉 또한 참으로 편안하게 보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탄력은 반드시 언제나 느슨하게 해 둔다고는 할 수 없다. 신체의 탄력은 근육의 움직임으로 활은 필요한 모든 탄력 자체의 활동이나 서로의 간섭과 협조 등이 가장 자유로이 이루어지도록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 ②신체적 운동

오른손의 움직임은 오른손 전체의 메커니즘의 완전한 일부로 된 활에 의해서 연주된다. 손, 팔, 손가락의 모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본래 둥근 모양을 그린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직선의 움직임이라고 해도 본래 원형적인 움직임의 연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sup>25)</sup>

오른손은 활의 움직임을 맡고 있으며 활의움직임에서는 손가락운동이 중요하다. 손가락의 움직임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손가락의 수직운동: 네 손가락과 엄지를 합쳐서 활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다.

둘째, 손가락의 수평운동: 내려 굽기 활의 끝에서 엄지와 제 4지는 거의 완전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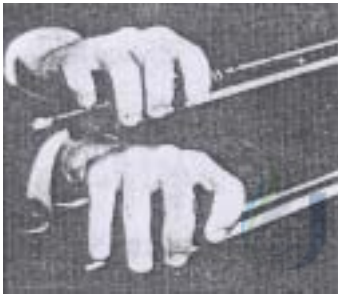
---

25) Ibid., pp.30-35.

똑바르게 하고 다음에 올려 굽기 활의 방향으로 운동을 되돌릴 때에 그것들은 원래의 구부러진 위치로 차차 되돌아간다.

셋째, 수직회전: 엄지 끝을 중심으로 해서 활의 끝을 수평호형으로 흔들리게 하는 것이다. 이 동작은 버팀말 과 활과 이루는 각도를 바꾸므로 활을 당기는 힘의 방향에서 약간조정, 특히 스피카토 또는 데타세 와같이 짧게 반복할 경우, 그 방향에 작은 조정을 하는데 쓰여 진다.

넷째, 축전운동: 엄지 끝을 중심으로 해서 활 끝이 수직의 호형을 그리도록 수직으로 활을 회전시키는 운동이다. 이 손가락 동작은 현에 걸리는 압력을 컨트롤하고 바꾸는데 사용할 수 있다.<sup>26)</sup>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4] 손가락의 운동: 오른손 손가락의 수직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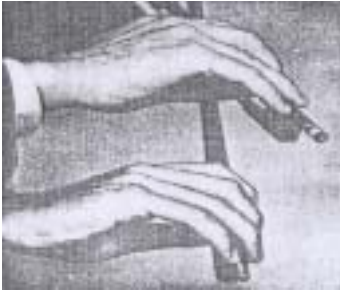


[그림-5] 오른손 손가락의 수평운동

---

26) Ibid., pp.42-47.





[그림-6] 현위에서의 활의 속도를 조정하기위한 손가락 축전운동.

### ③ 운궁법

운궁법 또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논문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을 하는 수업 인만큼 상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기초가 되는 활 굿기 에 대해서만 소개한다. 활 밑에서 끝까지의 직선 운궁은 보우잉 기술의 기초이다.

활 밑에서 끝까지의 직선 운궁은 보우잉 기술의 기초이다. 활은 직선적으로 버팀 말 과 평행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 의한다. 첫째 이유는 구부러진 운궁은 현위에서 활의 접촉 위치가 난잡하게 되고 버팀 말 과 의 거리가 일정치 않게 변하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구부러진 운궁은 음질을 나쁘게 하는 것이다.

전체의 활의 운궁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 활이 활 밑자리에서 현에 접촉하고 있을 경우, 팔과 악기로 사각형이 만들어진다.

둘째, 활이 거의 중앙에서 현에 접촉하고 있을 경우, 사각형이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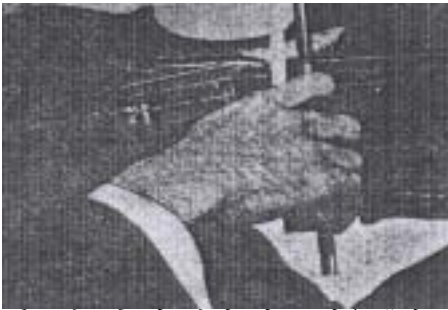
셋째, 활이 그 끝에서 현에 접촉 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렇듯 운궁의 연습은 4각형이 되는데서 시작하고 그로부터 끝이나 활 밑으로 향해서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다.<sup>27)</sup>

27) Ibid ., pp.48-49.



[그림 7] 활을 중앙 가까이에 둔 경우 “네모꼴”



[그림-8] 활 뒤에 있는 경우 “세모꼴”



[그림-9] 활 끝에 있는 경우

4각형: 4각형 자세의 정확한 위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 그러나 팔꿈치를 직각으로 굽히고 활을 버팀말에 평행이 되도록 없으면 장소를 간단히 정할 수 있다. 어깨부터 팔꿈치가 긴 사람의 경우, 접촉점은 활 끝을 향해 약간 옮겨질 것이다.

활을 G현에 두고 4각형을 만들고 앞에 말한 것처럼 기본 활 잡는 방법으로 할 경우, 손과 앞 팔은 대체로 수평면이 되고 대개 바닥이 평행으로 된다.

다른 현이 연주됨에 따라 운궁의 평면은 바닥에 대한 각도를 바꾸고 점점 오른 쪽 아래로 기울어진다. 손은 손목의 위치보다 높지도 낮지도 않고 또 옆으로 구부러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4각의 위치는 어느 방향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활 털은 현에 완전히 직각으로 교차 하고 있으며 주자의 어깨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힘을 약간 풀어야하며 그리고 이 힘을 푼 상태는 활 끝에서 끝까지 운궁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어깨 힘을 푸는 것을 강조 하는 것은 유익할 뿐 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다.<sup>28)</sup>

#### ④연습에 관하여

어린이 에게 있어 귀중한 것은 능률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즉 가장 적은 시간 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연습은 레슨의 계속이며 자기를 가르치는 과정에 지나지 않으며 거기에는 교사가 없어도 어린이가 교사대신 맡아서 자기에게 명확한 일을 주고 자기공부를 감독해야 된다는 것을 교사가 어린이에게 깨닫게 해야 할 것이다.

언제나 판에 박힌 방법을 확고히 고집해서 융통성을 잃게 되어서는 안 된다 먼저 음계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연습곡, 그리고 연주곡목의 연습순서를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 꼭 해야 할 일을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한, 이전 순서를 수정해서 곡부터 연습을 시작하고 음계에서 끝나도 괜찮다. 소재를 혼합해서 하나의 사항에 너무 오래 관여치 않도록 하면, 두뇌를 신선하게 오래 유지하는데 도움 되는 일이 많다.

연습이 매일 습관으로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나 규칙적인 매일의 연습은 불규칙적이고 단속적인사이를 둔 장시간의 집중연습 보다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sup>29)</sup>

---

28) Ibid., p.50.

29) Ibid., p.8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반 갈라미언의 바이올린 교수법에는 자세, 악기 잡는 법, 왼팔, 오른손 주법, 운지법, 운궁법, 연습에 관하여 등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과거의 많은 바이올린 지도 원리와 교수법을 바탕으로 더욱더 실제 악기 학습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술되어있다.

이반 갈라미언 또한 꼭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다. 초등학교 바이올린 특기 적성교육에서는 스즈키 나 그 외 학자들의 이론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좋은 바이올린 교수법은 아마도 많은 이론들 중에서 학생에 가장 적합하고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질 때 다양한 음악적 체험이 될 것이다.



### Ⅲ. 실태분석 및 결과

특기적성 바이올린 현황조사는 제주 시 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05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실시하였다.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 조사 시 대상이 질문이 있을 경우 저자가 직접 그 질문에 답하여서 조사 대상들의 이해를 도왔다.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설문지 문항 제작에 학생설문지는 20문항으로 제작하였다.

#### Ⅲ-1. 조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 작성은 연구자의 현장 1차 설문 조사와 특기 적성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의 설문지와 석문주 : 음악교육모임 (2001) 공적인 「음악과 수행중심 평가」를 참고 하였다 이를 지도교수의 지도를 통해서 작성하였다.

#### Ⅲ-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통계 처리 하였다.

첫째, 조사대상 학생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질문지의 각 문항에 관한 빈도를 산출하고 백분율로 환산하여 학생들의 견해를 분석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성별, 경력, 학년 에 따른 바이올린 특기적성 활동에 대한 실태와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고자했으며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SPSS 통계 분석 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컴퓨터를 이용하여 복잡한 자료를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통계 분석 프로그램

### Ⅲ-3.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의 현황 및 실태 분석

#### 1)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

〈표-3〉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

구분	빈도	%
5-6세	2	1.6
7-8세	69	55.6
9세	34	27.4
10세	14	11.2
11세	5	4.0
합계	124	100

〈표-3〉는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7-8세(55.6%)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9세(27.4%)로 입학 후 1년 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광자,(2001)에서 7-8세(45%),10세(32%),11세(15%)로 대다수 학생들이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을 시작하는 시기가 7-8세로 처음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배우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지역도 1년 후 시작하는 학생들로 많은 공통점이 드러났다.

#### 2) 바이올린을 하게 된 동기

〈표-4〉 바이올린을 하게 된 동기

구분	빈도	%
좋아서 스스로	69	55.6
부모님의 권유로	48	38.7
타인의 권유 및 기타	7	5.6
합계	125	100

\*결측치: n=1

〈표-4〉는 학생들이 바이올린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스스로 하게 됨(55.6%)로 매우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님의 권유로(38.7%)로 나타났다. 박설경(2004),은 내가원해서(59.5%),부모의 권유로(37.4%),친구가 하나(2.5%)로 대전지역 학생들의 바이올린 교육에 대한 동기항목 비율도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시작하게 되었다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비추어보면, 초기 특기 적성 교육에서는 부모의 권유가 압도적으로 작용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교육이 아니었지만, 현재는 무엇보다 자기가 스스로 배우고자하는 호기심과 적극적인 자세가 그 특기적성 교육이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3) 바이올린 학습빈도

〈표-5〉 바이올린 음악 수업의 학습빈도

구분	빈도	(%)
주일에 3회	15	12
주일에 2회	100	80
주일에 1회	7	5.6
기타	3	2.4
합계	125	100

〈표-5〉는 바이올린 음악 수업의 학습빈도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살펴보면, 주 2회가100(80%)로 조사되었고, 주 3회15(12%),주 1회가 7(5.6%),순으로 나타나 주 2회 학습빈도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김명숙(2000)의 주당 수업시간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주 2시간 수업(60.6%), 주 3시간 수업(28.3%),주 1시간 수업(8.1%),주 4시간 이상(3.1%)순으로 나타나 제주지역의 바이올린 음악수업의 학습빈도와 유사한 결과로써 주 2회에 해당되는 수업이 진행되어 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바이올린 학습 방식 {연습형태}

〈표-6〉 바이올린 학습방식 {연습 형태}

구분	빈도	%
스스로 한다	68	55.3
지시, 강요에 의해한다	32	16
하고 싶을 때 일정치 않다	16	13
아예 하지 않는다	7	5.7
합 계	124	100%

\*결측치: n=2

〈표-6〉는 학생들의 바이올린 학습방식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연습은 스스로 한다(55.3%)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시나 강요에 의해 한다(16%), 하고 싶을 때 한다(13%), 아예 하지 않는 다 (5.7%),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연습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 결과 였다.

그러나, 아직도 부모님이나 지도교사들의 지시나 반 강요에 의해 연습을 하고 있다는 응답 또한 있는 것은 기악의 연습은 매일 연습해야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연습을 해야 한다는 권유가 교육 현실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5) 바이올린 연습시간

〈표-7〉 연습시간

구분	빈도	%
20분 이하	36	28.8
30분	32	25.6
40분이상	57	45.6
합 계	125	100

바이올린 연습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7〉에 제시된바와 같이 40분 이상 연습한다(45.6%), 20분 이하(28.8%),30분(25.6%)순으로 나타났다. 과제가 많거나



연습량이 많을 시에는 연습시간이 늘어나 20분이하나 30분정도로 한다는 응답이 거의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연습시간이 규칙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김광애, (2000),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646명중에(29.1%)에 해당하는 179명의 학생들이 10분 이상 20분 이하의 시간을 연습하며 30분 이상 연습시간을 갖는 학생은 21%였지만, 이광자 (2001)에서는 거의 연습을 하지 않는다.(35%),30분 이내(12%),30~60분 (20%) ,1-2시간(33%)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제주 지역의 바이올린에 대한 개인적 연습시간은 다른 타 지역 학생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동기의 비율, 참여도비율을 연관 지어 볼 때 학생들의 연습시간은 규칙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 6) 새로운 곡 시작 시 음반을 듣고 오거나 클래식 음악 접하는지 여부

〈표-8〉 새로운 곡 시작 시 음반을 듣고, 클래식 음악 접하는지 여부

구분	빈도	%
자주 듣고 접한다	18	14.5
가끔 들으며 접한다	39	31.5
아예듣지도 접하지도않는다	67	54
합계	125	100

\*결측치:n=1

〈표-8〉은 바이올린 교육에서 새로운 곡을 배울 때 사전 예습으로 음반을 듣고 오거나 클래식 음악을 접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예 듣지도, 접하지도 않는다.(54%),가끔 들으며 접한다 (31.5%),자주 듣고 접한다 (14.5%) 순으로 비율이 나타났다. 이광자 (2000)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의 항목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서울시중심으로 총 645명중에서 듣지 않는다 (41.6%) 로 대도시일 경우와 제주 시 지역, 모두 듣지도 접하지도 않는다 라는 유사한 결과가 조사되었다. 이광자 (2001)에서도 학생들의 청취유무 비율을 찾아 볼 수 있는데, 매일 (10%) ,일주일에 1번(11%),15일에 1

변(15%), 거의 듣지 않는다(74%),로 위에 두 결과와 같이 나타났다.

위에서와 같이 바이올린 교육의 대부분 이론을 차지하는 스즈키 지도 원리에서 그 현실과의 큰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 7) 바이올린 지도 교사의 교체유무

〈표-9〉 바이올린 지도교사의 교체 유무

구분	빈도	%
있 다	27	21.8
없 다	97	78.2
합 계	125	100

\*결측치: n=1

〈표-9〉는 바이올린 지도교사의 교체유무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없다(78.2%), 있다(21.8%)로 나왔으며 제주 시 초등학교 특기 적성 교사의 교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었다.

반면, 한현주 (2003) 유사 항목의 결과에서는 지도교사의 교체를 있다는 비율이 총 762명 중(68.3%)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보면, 대도시지역으로 갈수록 지도강사의 교체 유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제주지역에는 특기 적성 교육의 교사 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지도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가 아주 지속적이고 학습도 또한 꾸준히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 강사 지원이 많아 교체가 수시로 가능하다면 제주지역은 강사 지원이 넉넉하지 않은 실정으로 인하여 교사 교체가 거의 없는 결과를 발견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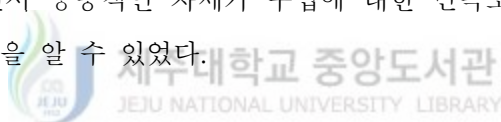
이는 지도교사의 교체유무가 학생들의 학습에서 정신적인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

## 8) 바이올린 음악 수업의 만족도

〈표-10〉 바이올린 음악 수업의 만족도

구분	빈도	%
즐겁다	89	71.2
보통이다	30	24
즐겁지 않다	6	4.8
합 계	125	100

〈표-10〉은 바이올린 음악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즐겁다가(71.2%),보통이다(24%),즐겁지 않다(4.8%)로 나타났으며 보통이고 즐겁지 않다는(28.8%)에 불과하여 학생들은 바이올린 음악수업을 즐겨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숙(2000)에서도 바이올린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한 유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만족감이 크다(52.5%),조금 만족한다(38.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5.1%),로 바이올린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수업의 동기가 스스로 좋아서 적극적이면서 능동적인 자세가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게 하는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



## 9) 바이올린 참여정도

〈표-11〉 바이올린 참여 정도

구분	빈도	%
빠지지 않고 열심히 배운 다	71	56.8
가끔 빠지나 열심히 배운 다	51	40.8
자주 빠지고 열심히 배우지도 않는 다	3	2.4
합 계	125	100

〈표-11〉은 바이올린 참여정도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빠지지 않고 열심히 배운 다 (56.8%),로 응답하였고 가끔 빠지나 열심히 배운다 (40.8%), 자주 빠지고 열심히 배우지도 않는 다 (2.4%) 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대다수가 수업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배운 다 라 나타났으며, 극소수의

(2.4%) 의 학생들만이 수업태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애(2003),에서는 6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배움 (54.6%),가끔 빠지나 열심히 배우는 편임(27.7%),자주 빠지고 열심히 배우지도 않음(2.4%),로 위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 10) 선생님과의 대화 및 질문 유무

〈표-12〉 선생님과의 대화 및 질문유무

구 분	빈 도	%
레슨 전후에 물어 본다	78	65.5
쉬는 시간에 물어 본다	10	8.4
전화해서 물어 본다	4	3.3
거의 묻지를 않는다	27	22.7
합 계	125	100

\*결측치: n=6

〈표-12〉 은 바이올린 교육에서 선생님과의 대화 및 질문 유무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레슨전후에 대화함(65.5%) 거의 묻지 않는다 (22.7%),쉬는 시간에 물어 본다 (8.4%),전화해서 물어 본다(3.3%) 순서로 나타나 학생 상당수가 레슨 후에 학습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레슨이 끝난 후에 질문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으로 환경적인 문제에 있을 시 부족한 질문사항을 묻지 않는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다.

## 11) 방학 중 레슨유무

〈표-13〉 방학 중 레슨유무

구 분	빈도	%
계속 받는다	107	86.7
레슨은 계속 받으나 자주 빠진다	16	12.8
방학때에는 아예 쉰다	2	1.6
합 계	125	100

〈표-13〉은 방학 중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의 레슨 유무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계속 받는 다 (86.7%),레슨은 계속 받으나 자주 빠진다 (12.8%) ,방학 때는 아예 쉰다,(1.6%)로 나타났다. 김광애 (2000)에서도 계속 받는 다 (82%) ,방학 중에는 쉰다 (13.2%) ,레슨은 계속 받으나 자주 빠진다.(4.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특기 적성 교육을 방학 때도 계속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드러났다.

## 12) 바이올린을 배우고 나서 달라진 점

〈표-14〉 달라진 점

구 분	빈 도	%
특기 적성 외에 수업에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45	37.8
친구들과 더 친해지게 되었다	38	31.9
자신이 멋지다고 생각 하게 됐다	27	22.6
박자를 셀 수 있게 되었다	9	7.6
합 계	125	100

\*결측치: n=6

〈표-14〉은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 후 학생들의 달라진 점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특기적성 외에 수업에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고 (37.8%)응답하였고, 친구들과 더 친해지게 되었다 (31.9%),자신이 멋지다고 생각하게 됐다(22.6%)박자를 셀 수 있게 되었다(7.6%)순으로 응답하였다.

이광자 (2001) ,박자를 셀 수 있어서(47%),자신의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함 (10%),무응답(43%),순으로 응답하였다.

### 13) 합주 빈도

〈표-15〉 합주 빈도

구 분	빈 도	%
매시간 마다 합주를 한 다	12	9.7
가끔 합주를 한 다	69	55.7
학교 주 행사에서만 1-2회 정도만 한다.	43	34.6
합 계	125	100

\*결측치: n=1

바이올린 합주활동의 빈도는 〈표-15〉에 보는바와 같이,(55.7%)가 가끔 합주를 한다고 응답하였고(34.6%),학교의 주 행사에서만 1-2회 정도 만 한다,(9.7%) 매시간 합주를 한 다 순으로 응답하여 합주수업을 한다기보다는 개인 연주와 진도를 이유로 연주의 즐거움을 빼앗아 버린 다 본다.

박설경,(2004)에서는 연간 발표회의 횟수가 연간 1회(65%), 2회는(12.8%),아예 실시하지 않음(21.3%)로 보아, 대전지역의 초등학교에서도 합주나 발표회는 거의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자(2001)에서 합주를 할 때 가 있다(35%), 없다(22%)로 응답하였다.

이같이 지역에 따라 합주 및 발표회를 자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 합주와 혼자 연주 때의 느낌

〈표-16〉 합주와 혼자 연주 때의 느낌

구 분	빈 도	%
합주가 더 재미있다	56	50.9
재미있다	16	14.5
보통이다	28	25.5
혼자연주할때가재미있다	10	9.1
합 계	125	100

\*결측치: n=15

〈표-16〉은 합주와 혼자 연주 때의 느낌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합주가 더 재미있다(50.9%),보통(25.5%),재미있다(14.5%) ,혼자 연주 할 때가 재미있다(9.1%) 순으로 대체로 혼자 연주 할 때 보다 합주가 더 재미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흥미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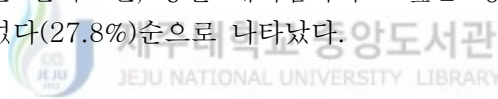
## 15) 콩쿨 대회 참가하고 싶은 생각

〈표-17〉 콩쿨 대회 참가 하고 싶은 생각

구 분	빈 도	%
있다	46	37.7
모르겠다.	42	34.4
없다	34	27.8
합 계	125	100

\*결측치: n=3

〈표-17〉에는 콩쿨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콩쿨 대회참가하고 싶은 생각은 있다(37.7%), 모르겠다 (34.4%), 없다(27.8%)순으로 나타났다.



## 16) 선호 교재 순서

〈표-18〉 선호 교재 순서

구 분	빈 도	%
스즈끼	44	37.3
호만	15	12.7
시노자끼	40	33.9
동요 (지도곡집)	12	10.2
기 타	7	5.9
합 계	125	100

\*결측치: n=7

〈표-18〉은 학생들의 선호 교재 순서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선호 하는 교재순서 는 스즈끼 바이올린 교본(37.3%),시노자끼

(33.9%), 호만(12.7%),동요(10.2%),기타 바이올린 교본(5.9%)순으로 응답하였다. 스즈키 교본의 만족도가 시노자끼 바이올린 교본보다 높았고, 현재 제주 시 지역 초등학교 바이올린 레슨에서 스즈키 교재를 많이 사용하며 시노자끼, 호만, 동요, 기타 스트링빌더 등의 교재가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레슨 시에는 스즈키 교재에 타 교재와 병행시켜 지도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김명운(1995),박설경(2004),박인건(1986년)에서도 스즈키의 교재만족도가(70.5%)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타 교재 병행 지도를 한 것으로 보아, 제주지역과 타지역간의 동일한 결과가 드러났다.

## 17) 바이올린을 왜 배우는지의 견해

〈표-19〉 바이올린의 학습이유

구분	빈도	%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20	16.4
친구들이 하나까	17	13.9
부모님의 권유여서	22	18
바이올린이 좋아서	63	51.6
합계	125	100

\*결측치: n=3

‘왜 바이올린을 배우나요?’란 질문에 (51.6%)가 바이올린이 좋아서,(18%)는 부모님의 권유여서 ,(16.4%)는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13.9%)친구들이 하나까,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광자(2001)에서는 연주자가 되려고(12%),부모님의 권유여서(35%),친구 따라서(20%),바이올린이 좋아서(20%)순으로 응답하였고 박설경(2004)에서는 바이올린이 좋아서(36.2%),취미활동을 위해서(25.4%),부모님이 시켜서(16.6%),음악성적을 높이기위해서(12.3%)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제주지역과 박설경(2004)에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바이올린이 좋아서하는 반면, 타 지역은 바이올린이 좋아서와 부모님의 권유로 인해 바이올린을 배우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학부모들의 특기 적성 교육 열의가 대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 III-4. 결과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활동 중인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지도방안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지역에 소재 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 학교 15개교 200명에게 설문 조사 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는 초등학교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설문지와 석문주: 음악 교육 모임 (2001) 공저인 「음악과 수행 중심 평가」를 중심으로 학생용 설문 20개의 문항으로 제작하였다.

서론의 연구 내용과 방법에서 언급 한 것과 같이,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 대상자중 학생은 성별, 학년에 따라, 초등학교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의 실태와 그에 관한 인식의 정도를 알아 보기위해  $\chi^2$ 검정 (Chi-Square test) 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의 과정으로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여학생이(78.4%)로 남학생(21.6%)에 비해 높았고 학습 년 수로는 1-2년까지(40.7%)로 바이올린에 대한 학습 년 수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기 1-2년까지는 학습 년 수도 높으나 점차 고학년으로 갈수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올린 시작시기로는 7-8세가(55.6%)로 이 시기에 학생들이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9세(27.4%)로 입학 후 1년 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서의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의 시작시기가 처음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었다. 이는 스즈끼 이론의

만 5세 이전에 바이올린을 배워야 한다는 교육의 원리보다는 늦은 시기지만, 부모들의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학교 입학과 동시에 자녀의 특기 계발과 재능 발견의 시간이므로 시작시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었다.

둘째, 학생이 바이올린을 배우게 된 동기는 좋아서 스스로(55.6%), 부모님의 권유로 (38.7%), 타인의 권유 및 기타 이유로(5.6%)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음악수업의 학습 빈도는 주일에 2(80%), 주일에 3회(12%), 주일에 1회(5.6%)순으로 나타났으며 타 지역의 경우에도 주 2시간 수업(60.6%), 주 3시간 수업(28.3%) 순으로 나타나 제주지역의 학습빈도와 유사한 결과로써 주 2회에 해당하는 수업이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학생의 바이올린 연습은 스스로 한다(55.3%)가 가장 많았으며 아예 하지 않는다(5.7%)로 나타났다. 개인의 연습시간은 40분이상이(57%), 20분 이하 30분 정도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연습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새로운 곡을 배울 때 사전예습으로 새로운 음반을 듣고 오거나 클래식 음악을 접하는지는 아예 듣지도 접하지도 않는 경우가(54%)로 가장 높았으며, 자주 접하고 듣는 학생은(14.5%)로 아주 학생들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여섯째, 지도교사의 교체유무는 바꾸지 않는 다 (78.2%)로 높게 나타났으며 방학 중에 레슨도(86.7%)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계속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보면, 학생들 대다수가 특기 적성 교육을 방학 때도 꾸준히 받고 자는 인식이 강한 것을 보여주었다.

일곱째, 학생들이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 만족도에서는(71.2%)가 즐겁다 라고 응답하였고, 바이올린 참여정도 또한 빠지지 않고 열심히 배운다(56.8%)로 대답하였다.

여덟째, 학생들은 합주가 더 재미있다(50.9%)로 응답한 반면에 학교에서의 합주 빈도는 가끔 합주 한다(55.7%), 학교 주 행사에서만 1-2회 정도만 한다 (34.6%)로 나타나 학생들의 합주에 대한 기회를 학교 측에서 자주 제공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교재는 스즈키 교본이(37.3%)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시노자끼, 호만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으로는 실제 레슨 시에는 병행하여 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을 왜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51.6%) 의 학생들이 바이올린이 좋아서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의 앞으로의 긍정 적인 면을 나타내었다.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 후 학생들의 달라진 점은 특기 적성 수업 외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여 꾸준한 학습의 결과가 특기 적성 외에 학생들의 활동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 IV. 초등학교 특기 적성 바이올린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환경

1) 특기 적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곡을 연습할 때 사전 연습으로 음반을 듣거나 클래식 음악을 접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예 듣지도 접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스즈키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곡을 접하고 반복하여 들려줌으로써 어린이의 청음능력과 암기 능력까지 향상시키고자 한 원리와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교실에는 다른 악기의 구비는 물론 CD활용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며 교실이 부족한 학교에서도 수업 장소로 일반 교실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저학년 정규수업이 끝나자마자 교실을 비워주어야 함으로써 담임교사는 수업지도연구, 학생생활지도등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담임교사와 외부지도 강사간의 불편함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한반에서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연주함으로써 다른 교실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교육에 필요한 방음시설의 미비함으로 교육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바이올린 등 악기도 보관할 수 있고 방음 및 냉, 난방 시설을 갖춘 전용 교실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교 행사나 수업 시에 자주 대중 앞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여야 한다. 스즈키 교수법에서는 학생이 주 1회 이상 발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실태에서 학생들이 합주활동을 가끔 하거나 학교의 중요

한 행사에서만 1-2회 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황 특기 적성 기악수업에서는 여전히 개인연주실력 향상과 진도를 이유로 합주 중심의 연주를 통하여 즐거움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자신감 증진과 실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학생들에게 자주 부여되는 프로그램 개발 되어야 한다.

2) 방학 중에는 레슨을 계속 많이 받고 있는 편이지만 잦은 결석으로 수업운영이 원활하지 않고 집중레슨으로 대처하여 줌으로써 학생들 실기 향상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는 쾌적한 교실 및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주도록 하며 특기 적성 교육이 규칙적으로 레슨과 연습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바이올린 지도교사의 교체유무를 묻는 질문에서는 없다(97%)로 대도시지역보다 교사 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과정 중에 교사가 바뀌지 않으므로 학생들의 정신적인 안정이 유지되며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도 지속적인 것으로 평가 된다. 대도시지역으로 갈수록 지도교사의 교체가 많았음을 볼 수 있듯이 지도교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바꿔버리는 학교 측의 관행은 곧 학생들의 학습에 악영향을 미쳐 바람 직 하지 않음을 교육담당자들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 2. 바이올린 특기적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1)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의 시작 시기는 7-8세의 학생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입학 후, 1년 후 9세 정도에 바이올린을 배우는 경우가 차 순위로 많았다. 이는 처음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배우기 시작하는 결과라 보여 진다. 또한, 부모들이 조기교육에 대한 인식을 하여 자녀의 재능발견과 음악적 경험을 높여 주기위한 목적으로 자녀들 입학과 동시에 특기 적성 교육을 시작하는 것으로 평가 된다.

스즈끼는 7세 이전, 취학 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능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빠르

면 빠를수록 어린이의 성장과정에 음악적 환경을 제공하여 음악적 능력을 개발, 조기에 교육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과 공통점이 많았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시작시기에 얽매어 특기 적성 교육의 목적에 부합치 못한 의도를 가지고 교육에 임한다면 시작은 컸으나, 끝에서는 기대한 결과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여야 한다.

2)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에서 학생들의 동기는 좋아서 스스로, 부모님의 권유로, 타인의 권유 및 기타 순으로, 특기 적성 교육 선택에 본인의 의견이 중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권유와 기타 주위의 환경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동기와 더불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즐겁다 로 나타나 바이올린 특기 적성 수업은 대체적으로 즐거웠음을 시사하고 있다.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수업태도와 적극성이 지역에 따라 비율의 차이를 보이거나 대다수 수업 태도는 긍정적, 능동적이었다. 동기나 만족도는 높은 반면에, 연습시간은 배정,운영 하지 않거나 불규칙적 이었다. 합주가 개인 실기 연주보다는 좋다는 학생들의 인식을 받아들여 합주의 기회를 늘리고 이를 통한 단결력과 협동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올바른 연습방법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학생들에게 연주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을 수 있는 효율적인 수업내용과 적절한 교재 및 악곡선택, 올바른 연습 방법을 지도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다각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바이올린을 배우는 이유가 바이올린이 좋아서, 부모의 권유로,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친구들이 하니까 라는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면,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높은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반면 부모의 권유나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란 의견이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보아, 과거의 우리나라 입시 위주 음악교육의 영향이 아직도 학생들에게 인식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끝으로 교사는 각 학생의 참석 및 진행상의변화와 부진한 영역을 한 눈에 파악 수 있도록 레슨시간마다 평가 및 관찰내용을 수시로 기록하여야 할 것이며 학생은 능력 면에서 모두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교사는 늘 학생을 관찰하고 그의 능력을 파악하여 수준에 맞는 지도를 해야 한다. 교사는 개인의 흥미나 능력에 알맞은 지도내용과 교재를 준비하고 지진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 3. 제 언

첫째, 향후 연구에서는 음악 특기 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을 투입하여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아울러 양적 연구뿐 만 아니라 참여관찰, 면접들을 통한 질적인 연구들도 함께 수행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문헌】

### 〈단행본〉

- 갈라미언 이반(1986), 「Principles of violin and Teaching」, 심상균역, 음악춘 추사.  
교육부(1999), 「초등학교 교과 과정 해설」  
교원단체 총 연합회(2000), 「방과 후 특별활동 지도방안」, 서울한국 교육과정  
평가 연구원.  
석문주 · 음악모임(2001), 「음악과 수행중심 평가」 한국 학술 연구원.  
새교실 8월호 (1989), 「기악합주」, 대한 교육연합회.  
이용일(1998), 「음악 교육해설」, 서울 현대 음악출판사.  
이성삼(1987), 「음악 교수법」, 서울 세광출판사.  
이홍수(1974), 「느낌과 통찰의 음악 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유덕희(1998), 「예능교육」,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최시원(1995), 「음악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다라 출판사.  
한정희 (2000), 「음악과 행복」, 처용 출판사  
Bastine, J.W.(1995) 「성공적 피아노 교수법」, 서울 음악춘추사.

### 〈논 문〉

- 김광애(2000), "어린이바이올린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구-그룹지도중심", 서원  
대학교교육대학원.  
김명숙(2000), "초등학교 특기 적성 교육에 관한 연구", 천안대학교.  
김명운(1995), "바이올린 초기 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 효성여자 대학교 교육대  
학원.  
김재복(2000), "초,중등학교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인천  
교육대학교.  
김효식(2004), "스즈키 메소드에 초보 바이올린 지도법 연구-운궁법중심", 서울  
국민대학원.



박설경(2004), “초등학교 특기 적성 바이올린부의 실태연구”,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심영내(1999), “바이올린 그룹지도 방법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서울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이광자(2003), “실태조사를 거쳐서 본 바이올린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오인교(2003), “초등학교 특기 적성 지도를 통한 바이올린 능력향상 방안”,인천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 교원 단체 총 연합회(1999),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혁신안 적용 실태 및 개선방향”, 서울정책 연구소.

황경익(1983). “스즈끼 메소드에 관한 연구”,서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Margaret L.Stone(1981)"Kodaly Method Context-creating an Environment for Musical Learning" N.J:Prectice-Hall. Inc.,



〈Summary〉

**A Study on Problems and Solutions in Violin Specialty Aptitude Education**

Kim, Da-hae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Prof. name)

(Supervised by Professor Lee, Chun-ki)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survey the current state of violin specialty aptitude education for elementary students in Jeju-do, to identify problem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propose solutions as an effort to activate specialty aptitude education of music, to improve the education and to develop efficient teaching methods.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200 students at 30 schools in Jeju-do for around 4 months, who were selected through purposeful sampling due to the characteristics the locality and the situation. Frequencies and percentages were derived from the collected data for frequency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participation rate was higher in female students (78.4%) than in male ones (21.6%), and the age of starting was usually 7~8 years (55.6%). As for motives for participation, most students participated at their own will.

Second, the frequency of learning was generally twice a week (2 hours) both in the Jeju area and other areas. Students practiced by themselves. Students in the Jeju area practiced over 40 minutes (57%) but those in other areas practiced 10~20 minutes (29%) or did not practice at all, showing that students in the Jeju area spent more time for practice.

future study.

First, there should be empirical and experiential researches on different variables of music specialty aptitude education.

Second, not only quantitative researches, there should be qualitative researches through participative observation and interview.

※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_\_, \_2006,\_8\_.

(졸업 년 월)

# ‘부 록’



## 부 록

이 설문지는 대학원의 논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특기적성교육을 통하여 음악을 공부하는 동안기악{악기}대한 학습을 얼마나 하며 바이올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니 성의를 다하여 질문에 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 음악 교육 전공:  
김다혜

각 문항을 읽고 각 문항에 대해 서 { }안에 기재 하여 주세요

1.성별: 남 { } 여{ }

2.학년:{ }년

3.바이올린 학습 년 수 { }년



바이올린 은 몇 살부터 배우기 시작했나요?

1.5\_6세 2.7-8세 3. 9살 4.10살 5.11살 기타:

2.바이올린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1.좋아서 스스로

2. 부모님의 권유로

3.선생님의 권유로

4. 친구의 권유로

5.기타 매체를 통해 보다가

3.바이올린은 어디서 배우고 있습니까?

1.학원 2. 자신의 집 3. 교회나 복지관 4. 학교 5. 기타 다른 장소

4.바이올린 은 어떻게 배우나요?

- 1.매일 2. 주일에 1회
3. 주일에 2회
4. 3회
- 5.기타

5.바이올린 연습은 ?

- 1.스스로 한다
2. 지시에 의해 한다.
- 3.강요에 의해 한다.
- 4.하고 싶을때 일정치 않다
- 5.아예 하지 않는다.

6.하루의 연습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1.10분 이하
- 2.10-20분 이하
- 3.30분
- 4.30분 이상
5. 40분 이상
- 6.아예 하지 않는 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7.새로운 곡을 시작 시 음반(CD)를 듣고 하거나 자주 클래식 음악을 듣  
나요?

1. 매시간 마다 듣는 다
2. 자주 듣는 다
3. 가끔 듣는다.
4. 듣지 않는 다
- 5.기타:

8.선생님이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1. 있다. 2.없다

3.기타:

9.바이올린 수업이 즐겁나요?

- 1.매우 즐겁다
2. 약간 즐겁다
3. 보통이다
4. 즐겁지 않다
- 5.아주 싫다

10. 바이올린 실기 참여 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1. 빠지지 않고 열심히 배운다.
2. 빠지지 않지만 열심히 배우지 않는다.
3. 가끔 빠지나 열심히 배운다.
4. 자주 빠지고 열심히 배우지 않는다.
5. 수업태도 안 좋다

11. 학습 시 질문내용이 생겼을때 어떻게 하나요?

- 1.레슨전후에 선생님께 물어 본다
2. 쉬는 시간에
3. 수업 후 찾아가서 물어 본다
4. 집에서 전화해서 물어 본다
5. 거의 묻지 않는다.

12. 방학 중에도 수업을 만나요?

- 1.계속 받는다.
2. 방학 중 에는 수업을 쉰다.
3. 레슨은 계속 받으나 자주 빠진다.
4. 방학 때 에는 쉰다.

13.바이올린을 배우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1.특기적성 외에 수업에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2. 친구들과도 많이 더 친해질 수 있었다.

3. 박자를 셀 수 있어서.
4. 자신이 멋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5. 무응답

14. 바이올린 합주를 해봤나요?

1. 매시간 마다 합주는 한다.
2. 자주 한다
3. 가끔 한다.
4. 학교 주 행사에서만 1-2회 정도 한다.
5. 아예 하지 않는다.

15. 합주를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이 있나요?

16. 합주 때와 혼자 연주 할때의 느낌은 어떤가요?

1. 합주가 더 재미있다
2. 혼자 연주 할때 가 재미있다.
3. 보통이다
4. 재미있다
5. 안했으면 좋겠다.



17. 콩쿨 대회 나 발표회에 출연하고 싶은 생각은 있나요?

1. 있다
2. 모르겠다.
3. 없다
4. 기타:

18. 배우는 교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교재는 무엇인가요?

1. 스즈끼
2. 호만
3. 시노자키
4. 동요 [지도 곡집}
5. 기타



19. 왜 바이올린을 배우나요?

- 1.연주자가 될 려고
2. 좋은 대학을 가기위해서
3. 부모님의 권유여서
- 4.친구들이 하나까
- 5.바이올린이 좋아서

20. 수업시간에 선생님이나 학교에 바라는 점 이 있다면 써주세요

\*앞으로 배우고 싶은 악기는 무엇인가요?

끝까지 질문에 응해주어서 감사합니다

### < 단행본 >

- 갈라미언 이반(1986), 「Principles of violin and Teaching」,심상균역, 음악춘 추사.  
교육부(1999), 「초등학교 교과 과정 해설」  
교원단체 총 연합회(2000), 「방과 후 특별활동 지도방안」, 서울한국 교육과정  
평가 연구원.  
석문주 · 음악모임(2001), 「음악과 수행중심 평가」 한국 학술 연구원.  
새교실 8월호 (1989), 「기악합주」, 대한 교육연합회.  
이용일(1998), 「음악 교육해설」, 서울 현대 음악출판사.  
이성삼(1987), 「음악 교수법」, 서울 세광출판사.  
이흥수(1974), 「느낌과 통찰의 음악 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유덕희(1998), 「예능교육」,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최시원(1995), 「음악교육 어떻게 할것인가」 서울 다라 출판사.  
한정희 (2000), 「음악과 행복」, 처용 출판사  
Bastine,J.W.(1995) 「성공적 피아노 교수법」, 서울 음악춘추사.

〈논 문〉

김광애(2000), "어린이바이올린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구-그룹지도중심", 서원대학교교육대학원.

김명숙(2000), "초등학교 특기 적성 교육에 관한 연구", 천안대학교.

김명윤(1995), "바이올린 초기 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 효성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재복(2000), "초,중등학교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인천교육대학교.

김효식(2004), "스즈끼 메소드에 초보 바이올린 지도법 연구-운궁법중심", 서울국민대학원.

박설경(2004), "초등학교 특기 적성 바이올린부의 실태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심영내(1999), "바이올린 그룹지도 방법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울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이광자(2003), "실태조사를 거쳐서 본 바이올린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오인교(2003), "초등학교 특기 적성 지도를 통한 바이올린 능력향상 방안",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 교원 단체 총 연합회(1999),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혁신안 적용 실태 및 개선방향", 서울정책 연구소.

황경익(1983). "스즈끼 메소드에 관한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Margaret L.Stone(1981)"Kodaly Method Context-Greating an Envionment for Musical Learning" N.J:Prectice-Hall. Inc.,

**A Study on Problems and Solutions in Violin Specialty Aptitude Education**

Kim, Da-hae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Prof. name)

(Supervised by Professor Lee, Chun-ki)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survey the current state of violin specialty aptitude education for elementary students in Jeju-do, to identify problem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propose solutions as an effort to activate specialty aptitude education of music, to improve the education and to develop efficient teaching methods.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200 students at 30 schools in Jeju-do for around 4 months, who were selected through purposeful sampling due to the characteristics the locality and the situation. Frequencies and percentages were derived from the collected data for frequency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participation rate was higher in female students (78.4%) than in male ones (21.6%), and the age of starting was usually 7~8 years (55.6%). As for motives for participation, most students participated at their own will.

Second, the frequency of learning was generally twice a week (2 hours) both in the Jeju area and other areas. Students practiced by themselves. Students in the Jeju area practiced over 40 minutes (57%) but those in other areas practiced 10~20 minutes (29%) or did not practice at all, showing that students in the Jeju area spent more time for practice.

Third, with regard to listening to disks, a majority of students (54%) did not listen to nor contact disks, and the result was similar in other areas (41.6%). As for the change of teachers, there was almost no change of teachers in the Jeju area, but there were in other areas (68.3%).

Fourth, with regard to satisfaction with violin specialty aptitude education, most of

students (71.2%) replied that they enjoyed the education and learned diligently even during the vacations without skipping the lessons. This suggests that students have a firm will to get specialty aptitude education continuously during the semester as well as the vacation.

Fifth, many students replied that concerts were more interesting than personal practice (50.9%), and the frequency of concerts was rare or 1~2 times mainly at school events. Preferred textbooks were Suzuki, Sinozaki and Homan in order of preference, and violin lessons were usually given using textbooks. The frequency of concerts and preference for textbooks were similar in other areas.

Sixth, differences resulting from specialty aptitude education were that students came to be confident in general school life and have an active attitude and that they came to be fond of violin. In other areas, however, the first reason for learning the violin was parents' encouragement and, next, students' liking for violin, showing differences among areas in the reason for learning the violin.

The followings are problems identifi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solutions.

Identified problems were inadequate educational facilities and condition, lack of teachers' specialty and understanding, etc. Improvements to be made were the provision of other instruments, music room with soundproofed walls and heating/air conditioning functions, facilities to use CDs and multimedia, the development of various programs and opportunities for performance, the use of textbooks to experience various genres, customized textbooks and music, self-development programs for teachers, many-sided supports from the school and parents, etc.

Last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were made as follows for future study.

First, there should be empirical and experiential researches on different variables of music specialty aptitude education.

Second, not only quantitative researches, there should be qualitative researches through participative observation and interview.

1)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_\_, \_2006,\_8\_.

(졸업 년 월)

# ‘부 록’



특기적성 바이올린 현황조사는 제주 시 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05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실시하였다.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 조사 시 대상이 질문이 있을 경우 저자가 직접 그 질문에 답하여서 조사 대상들의 이해를 도왔다.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설문지 문항 제작에 학생설문지는 20문항으로 제작하였다.

## Ⅲ-1. 조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 작성은 연구자의 현장 1차 설문 조사와 특기 적성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의 설문지와 석문주 : 음악교육모임 (2001) 공저인 「음악과 수행중심 평가」를 참고 하였다 이를 지도교수의 지도를 통해서 작성하였다.

### III-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통계 처리 하였다.

첫째, 조사대상 학생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질문지의 각 문항에 관한 빈도를 산출하고 백분율로 환산하여 학생들의 견해를 분석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성별, 경력, 학년 에 따른 바이올린 특기 적성 활동에 대한 실태와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하고자했으며 모든 통계 분석은 SPSS<sup>2)</sup>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III-3.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의 현황 및 실태 분석

#### 1)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

〈표-3〉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

구분	빈도	%
5-6세	2	1.6
7-8세	69	55.6
9세	34	27.4
10세	14	11.2
11세	5	4.0
합계	124	100

〈표-3〉 는 바이올린 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7-8세(55.6%)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9세(27.4%)로 입학 후 1년 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광자,(2001)에서 7-8세(45%),10세(32%),11세(15%)로 대다수 학생들이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을 시작하는 시기가 7-8세로 처음 초등학교

\*SPSS 통계 분석 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컴퓨터를 이용하여 복잡한 자료를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통계 분석 프로그램

교 입학과 동시에 배우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지역도 1년 후 시작하는 학생들로 많은 공통점이 드러났다.

## 2) 바이올린을 하게 된 동기

〈표-4〉 바이올린을 하게 된 동기

구분	빈도	%
좋아서 스스로	69	55.6
부모님의 권유로	48	38.7
타인의 권유 및 기타	7	5.6
합계	125	100

\*결측치: n=1

〈표-4〉는 학생들이 바이올린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스스로 하게 됨(55.6%)로 매우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님의 권유로(38.7%)로 나타났다. 박설희(2004),은 내가원해서(59.5%),부모의 권유로(37.4%),친구가 하나(2.5%)로 대전지역 학생들의 바이올린 교육에 대한 동기항목 비율도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시작하게 되었다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비추어보면, 초기 특기 적성 교육에서는 부모의 권유가 압도적으로 작용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교육이 아니었지만, 현재는 무엇보다 자기가 스스로 배우고자하는 호기심과 적극적인 자세가 그 특기적성 교육이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3) 바이올린 학습빈도

〈표-5〉 바이올린 음악 수업의 학습빈도

구분	빈도	(%)
주일에 3회	15	12
주일에 2회	100	80
주일에 1회	7	5.6



기타	3	2.4
합계	125	100

〈표-5〉는 바이올린 음악 수업의 학습빈도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살펴보면, 주 2회가100(80%)로 조사되었고, 주 3회15(12%), 주 1회가 7(5.6%),순으로 나타나 주 2회 학습빈도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김명숙 (2000)의 주당 수업시간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주 2시간 수업(60.6%), 주 3시간 수업(28.3%), 주 1시간 수업(8.1%), 주 4시간 이상(3.1%)순으로 나타나 제주지역의 바이올린 음악수업의 학습빈도와 유사한 결과로써 주 2회에 해당되는 수업이 진행되어 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4)바이올린 학습 방식 {연습형태}

〈표-6〉 바이올린 학습방식 {연습 형태}

구분	빈도	%
스스로 한다	68	55.3
지시, 강요에 의해한다	32	16
하고 싶을 때 일정치 않다	16	13
아예 하지 않는다	7	5.7
합 계	124	100%

\*결측치: n=2

〈표-6〉는 학생들의 바이올린 학습방식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연습은 스스로 한다(55.3%)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시나 강요에 의해 한다(16%), 하고 싶을 때 한다(13%), 아예 하지 않는 다 (5.7%),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연습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 결과 였다.

그러나, 아직도 부모님이나 지도교사들의 지시나 반 강요에 의해 연습을 하고 있다는 응답 또한 있는 것은 기악의 연습은 매일 연습해야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연습을 해야 한다는 권유가 교육 현실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 5) 바이올린 연습시간

〈표-7〉 연습시간

구분	빈도	%
20분 이하	36	28.8
30분	32	25.6
40분이상	57	45.6
합 계	125	100

바이올린 연습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7〉에 제시된바와 같이 40분 이상 연습한다(45.6%), 20분 이하(28.8%),30분(25.6%)순으로 나타났다. 과제가 많거나 연습량이 많을 시에는 연습시간이 늘어나 20분이하나 30분정도로 한다는 응답이 거의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연습시간이 규칙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김광애, (2000),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646명중예(29.1%)에 해당하는 179명의 학생들이 10분 이상 20분 이하의 시간을 연습하며 30분 이상 연습시간을 갖는 학생은 21%였지만, 이광자 (2001)에서는 거의 연습을 하지 않는다.(35%),30분 이내(12%),30~60분 (20%) ,1-2시간(33%)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제주 지역의 바이올린에 대한 개인적 연습시간은 다른 타 지역 학생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동기의 비율, 참여도비율을 연관 지어 볼 때 학생들의 연습시간은 규칙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 6) 새로운 곡 시작 시 음반을 듣고 오거나 클래식 음악 접하는지 여부

〈표-8〉 새로운 곡 시작 시 음반을 듣고 , 클래식 음악 접하는지 여부

구분	빈도	%
----	----	---

자주 듣고 접한다	18	14.5
가끔 들으며 접한다	39	31.5
아예 듣지도 접하지도않는다	67	54
합계	125	100

\*결측치:n=1

〈표-8〉은 바이올린 교육에서 새로운 곡을 배울 때 사전 연습으로 음반을 듣고 오거나 클래식 음악을 접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예 듣지도, 접하지도 않는다.(54%),가끔 들으며 접한다(31.5%),자주 듣고 접한다 (14.5%) 순으로 비율이 나타났다. 이광자 (2000) 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의 항목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서울시중심으로 총 645명중에서 듣지 않는다 (41.6%) 로 대도시일 경우와 제주 시 지역, 모두 듣지도 접하지도 않는다 라는 유사한 결과가 조사되었다. 이광자 (2001) 에서도 학생들의 청취유무 비율을 찾아 볼 수 있는데, 매일 (10%) ,일주일에 1번(11%),15일에 1번(15%),거의 듣지 않는다(74%),로 위에 두 결과와 같이 나타났다.

위에서와 같이 바이올린 교육의 대부분 이론을 차지하는 스즈끼 지도 원리에서 그 현실과의 큰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 7)바이올린 지도 교사의 교체유무

〈표-9〉 바이올린 지도교사의 교체 유무

구분	빈도	%
있 다	27	21.8
없 다	97	78.2
합 계	125	100

\*결측치: n=1

〈표-9〉는 바이올린 지도교사의 교체유무 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없다(78.2%),있다(21.8%)로 나왔으며 제주 시 초등학교 특기 적성 교사의 교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었다.

반면, 한현주 (2003) 유사 항목의 결과에서는 지도교사의 교체를 있다는 비율이 총762명 중(68.3%) 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보면, 대도시지역으로 갈수록 지도강사의 교체 유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제주지역에는 특기 적성 교육의 교사 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지도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가 아주 지속적이고 학습도 또한 꾸준히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 강사 지원이 많아 교체가 수시로 가능하다면 제주지역은 강사 지원이 넉넉하지 않은 실정으로 인하여 교사 교체가 거의 없는 결과를 발견 할 수 있었다.

이는 지도교사의 교체유무가 학생들의 학습에서 정신적인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

## 8)바이올린 음악 수업의 만족도

〈표-10〉 바이올린 음악 수업의 만족도

구분	빈도	%
즐겁다	89	71.2
보통이다	30	24
즐겁지않다	6	4.8
합 계	125	100

〈표-10〉 은 바이올린 음악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즐겁다가(71.2%),보통이다(24%),즐겁지 않다(4.8%)로 나타났으며 보통이고 즐겁지 않다는(28.8%)에 불과하여 학생들은 바이올린 음악수업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숙(2000)에서도 바이올린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한 유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만족감이 크다(52.5%),조금 만족한다(38.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5.1%),로 바이올린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수업의 동기가 스스로 좋아서 적극적이면서 능동적인 자세가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게 하는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

## 9) 바이올린 참여정도

〈표-11〉 바이올린 참여 정도

구분	빈도	%
빠지지 않고 열심히 배운 다	71	56.8
가끔 빠지나 열심히 배운 다	51	40.8
자주 빠지고 열심히 배우지도 않는 다	3	2.4
합 계	125	100

〈표-11〉은 바이올린 참여정도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빠지지 않고 열심히 배운 다 (56.8%),로 응답하였고 가끔 빠지나 열심히 배운다 (40.8%), 자주 빠지고 열심히 배우지도 않는 다 (2.4%)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대다수가 수업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배운 다 라 나타났으며, 극소수의 (2.4%)의 학생들만이 수업태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애(2003),에서는 6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배움 (54.6%),가끔 빠지나 열심히 배우는 편임(27.7%),자주 빠지고 열심히 배우지도 않음(2.4%),로 위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 10) 선생님과 의 대화 및 질문 유무

〈표-12〉 선생님과 의 대화 및 질문유무

구분	빈도	%
레슨 전후에 물어 본다	78	65.5
쉬는 시간에 물어 본다	10	8.4
전화해서 물어 본다	4	3.3
거의 묻지를 않는 다	27	22.7
합 계	125	100

\*결측치: n=6

〈표-12〉은 바이올린 교육에서 선생님과 대화 및 질문 유무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레슨전후에 대화함가(65.5%) 거의 묻지 않는다 (22.7%),쉬는 시간에 물어 본다 (8.4%),전화해서 물어 본다(3.3%) 순서로 나타나 학생 상당수가 레슨 후에 학습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레슨이 끝난 후에 질문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으로 환경적인 문제에 있을 시 부족한 질문사항을 묻지 않는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다.

## 11) 방학 중 레슨유무

〈표-13〉 방학 중 레슨유무

구 분	빈도	%
계속 받는다	107	86.7
레슨은 계속 받으나 자주 빠진다	16	12.8
방학때에는 아예 쉰다	2	1.6
합 계	125	100

〈표-13〉은 방학 중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의 레슨 유무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계속 받는 다 (86.7%),레슨은 계속 받으나 자주 빠진다 (12.8%) ,방학 때는 아예 쉰다,(1.6%)로 나타났다. 김광애 (2000) 에서도 계속 받는 다 (82%) ,방학 중에는 쉰다 (13.2%) ,레슨은 계속 받으나 자주 빠진다.(4.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특기 적성 교육을 방학 때도 계속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드러났다.

## 12) 바이올린을 배우고 나서 달라진 점

〈표-14〉 달라진 점

구 분	빈 도	%
특기 적성 외에 수업에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45	37.8

친구들과 더 친해지게 되었다	38	31.9
자신이 멋지다고 생각 하게 됐다	27	22.6
박자를 셀 수 있게 되었다	9	7.6
합 계	125	100

\*결측치: n=6

<표-14> 은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 후 학생들의 달라진 점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특기적성 외에 수업에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고 (37.8%)응답하였고, 친구들과 더 친해지게 되었다(31.9%),자신이 멋지다고 생각하게 됐다(22.6%)박자를 셀 수 있게 되었다(7.6%)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광자 (2001) ,박자를 셀 수 있어서(47%),자신의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함(10%),무응답(43%),순으로 응답하였다.



### 13) 합주 빈도

<표-15> 합주 빈도

구 분	빈 도	%
매시간 마다 합주를 한 다	12	9.7
가끔 합주를 한 다	69	55.7
학교 주 행사에서만1-2회 정도만 한다.	43	34.6
합 계	125	100

\*결측치: n=1

바이올린 합주활동의 빈도는 <표-15> 에 보는바와 같이,(55.7%)가 가끔 합주를 한다고 응답하였고(34.6%),학교의 주 행사에서만 1-2회 정도 만 한다,(9.7%) 매 시간 합주를 한 다 순으로 응답하여 합주수업을 한다기보다는 개인 연주와 진도를 이유로 연주의 즐거움을 빼앗아 버린 다 본다.

박설경,(2004)에서는 연간 발표회의 횟수가 연간 1회(65%), 2회는(12.8%),아예

실시하지 않음(21.3%)로 보아, 대전지역의 초등학교에서도 합주나 발표회는 거의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자(2001)에서 합주를 할 때 가 있다(35%), 없다(22%)로 응답하였다.

이같이 지역에 따라 합주 및 발표회를 자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 합주와 혼자 연주 때의 느낌

〈표-16〉 합주와 혼자 연주 때의 느낌

구 분	빈 도	%
합주가 더 재미있다	56	50.9
재미있다	16	14.5
보통이다	28	25.5
혼자연주할때가재미있다	10	9.1
합 계	125	100

\*결측치: n=15

〈표-16〉은 합주와 혼자 연주 때의 느낌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합주가 더 재미있다(50.9%),보통(25.5%),재미있다(14.5%),혼자 연주 할 때가 재미있다(9.1%) 순으로 대체로 혼자 연주 할 때 보다 합주가 더 재미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흥미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 15) 콩쿨 대회 참가하고 싶은 생각

〈표-17〉 콩쿨 대회 참가 하고 싶은 생각

구 분	빈 도	%
있다	46	37.7
모르겠다.	42	34.4
없다	34	27.8
합 계	125	100

\*결측치: n=3

〈표-17〉에는 콩쿨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콩쿨 대회참가하고 싶은 생각은 있다(37.7%),



모르겠다 (34.4%), 없다(27.8%)순으로 나타났다.

## 16) 선호 교재 순서

〈표-18〉 선호 교재 순서

구 분	빈 도	%
스즈끼	44	37.3
호만	15	12.7
시노자끼	40	33.9
동요 (지도곡집)	12	10.2
기 타	7	5.9
합 계	125	100

\*결측치: n=7

〈표-18〉은 학생들의 선호 교재 순서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선호 하는 교재순서는 스즈끼 바이올린 교본(37.3%),시노자끼(33.9%), 호만(12.7%),동요(10.2%),기타 바이올린 교본(5.9%)순으로 응답하였다. 스즈끼 교본의 만족도가 시노자끼 바이올린 교본보다 높았고, 현재 제주 시 지역 초등학교 바이올린 레슨에서 스즈끼 교재를 많이 사용하며 시노자끼, 호만, 동요, 기타 스트링빌더 등의 교재가 활용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레슨 시에는 스즈끼 교재에 타 교재와 병행시켜 지도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김명윤(1995),박설경(2004),박인건(1986년)에서도 스즈끼의 교재만족도가(70.5%)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타 교재 병행 지도를 한 것으로 보아, 제주지역과 타지역간의 동일한 결과가 드러났다.

## 17) 바이올린을 왜 배우는지의 견해

〈표-19〉 바이올린의 학습이유

구 분	빈 도	%
-----	-----	---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20	16.4
친구들이 하나까	17	13.9
부모님의 권유여서	22	18
바이올린이 좋아서	63	51.6
합 계	125	100

\*결측치: n=3

‘왜 바이올린을 배우나요?’란 질문에 (51.6%)가 바이올린이 좋아서, (18%)는 부모님의 권유여서, (16.4%)는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13.9%)친구들이 하나까,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광자(2001)에서는 연주자가 되려고(12%),부모님의 권유여서(35%),친구 따라서(20%),바이올린이 좋아서(20%)순으로 응답하였고 박설경(2004)에서는 바이올린이 좋아서(36.2%),취미활동을 위해서(25.4%),부모님이 시켜서(16.6%),음악성적을 높이기위해서(12.3%)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제주지역과 박설경(2004)에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바이올린이 좋아서하는 반면, 타 지역은 바이올린이 좋아서와 부모님의 권유로 인해 바이올린을 배우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학부모들의 특기 적성 교육 열의가 대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 III-4. 결과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활동 중인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지도방안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지역에 소재 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 학교 15개교 200명에게 설문 조사 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는 초등학교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설문지와 석문주: 음악 교육 모임 (2001) 공저인 「음악과 수행 중심 평가」를 중심으로 학생용 설문 20개의 문항으로 제작하였다.

서론의 연구 내용과 방법에서 언급 한 것과 같이,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s 12.0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 대상자중 학생은 성별, 학년에 따라, 초등학교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의 실태와 그에 관한 인식의 정도를 알아 보기위해  $\chi^2$ 검정 (Chi-Square test) 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의 과정으로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여학생이(78.4%)로 남학생(21.6%)에 비해 높았고 학습 년 수로는 1-2년까지(40.7%)로 바이올린에 대한 학습 년 수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기 1-2년까지는 학습 년 수도 높으나 점차 고학년으로 갈수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올린 시작시기로는 7-8세가(55.6%)로 이 시기에 학생들이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9세(27.4%)로 입학 후 1년 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서의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의 시작시기가 처음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었다. 이는 스즈키 이론의 만 5세 이전에 바이올린을 배워야 한다는 교육의 원리보다는 늦은 시기지만, 부모들의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학교 입학과 동시에 자녀의 특기 계발과 재능 발견의 시간이므로 시작시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었다.

둘째, 학생이 바이올린을 배우게 된 동기는 좋아서 스스로(55.6%),부모님의 권유로 (38.7%),타인의 권유 및 기타 이유로(5.6%)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음악수업의 학습 빈도는 주일에 2(80%),주일에 3회(12%),주일에 1회(5.6%)순으로 나타났으며 타 지역의 경우에도 주 2시간 수업(60.6%),주 3시간 수업(28.3%) 순으로 나타나 제주지역의 학습빈도와 유사한 결과로써 주 2회에 해당하는 수업이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학생의 바이올린 연습은 스스로 한다(55.3%)가 가장 많았으며 아예 하지 않는다(5.7%)로 나타났다. 개인의 연습시간은 40분이상이(57%), 20분 이하 30분 정도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연습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새로운 곡을 배울 때 사전예습으로 새로운 음반을 듣고 오거나 클래식 음악을 접하는지는 아예 듣지도 접하지도 않는 경우가(54%)로 가장 높았으며, 자주 접하고 듣는 학생은(14.5%)로 아주 학생들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여섯째, 지도교사의 교체유무는 바꾸지 않는 다 (78.2%)로 높게 나타났으며 방학 중에 레슨도(86.7%)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계속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보면, 학생들 대다수가 특기 적성 교육을 방학 때도 꾸준히 받고 자는 인식이 강한 것을 보여주었다.

일곱째, 학생들이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 만족도에서는(71.2%)가 즐겁다 라고 응답하였고, 바이올린 참여정도 또한 빠지지 않고 열심히 배운다(56.8%)로 대답하였다.

여덟째, 학생들은 합주가 더 재미있다(50.9%)로 응답한 반면에 학교에서의 합주 빈도는 가끔 합주 한다(55.7%), 학교 주 행사에서만 1-2회 정도만 한다 (34.6%)로 나타나 학생들의 합주에 대한 기회를 학교 측에서 자주 제공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교재는 스즈키 교본이(37.3%)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시노자끼, 호만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으로는 실제 레슨 시에는 병행하여 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을 왜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51.6%)의 학생들이 바이올린이 좋아서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의 앞으로의 긍정 적인 면을 나타내었다.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 후 학생들의 달라진 점은 특기 적성 수업 외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여 꾸준한 학습의 결과가 특기 적성 외에 학생들의 활동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 IV. 초등학교 특기 적성 바이올린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환경

1) 특기 적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곡을 연습할 때 사전 예습으로 음반을 듣거나 클래식 음악을 접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예 듣지도 접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스즈키 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곡을 접하고 반복하여 들려줌으로써 어린이의 청음능력과 암기 능력까지 향상시키고자 한 원리와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교실에는 다른 악기의 구비는 물론 CD활용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며 교실이 부족한 학교에서도 수업 장소로 일반 교실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저학년 정규수업이 끝나 자 마자 교실을 비워주어야 함으로써 담임교사는 수업지도연구, 학생생활지도등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담임교사와 외부지도 강사간의 불편함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한반에서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연주함으로써 다른 교실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교육에 필요한 방음시설의 미비함으로 교육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바이올린 등 악기도 보관할 수 있고 방음 및 냉, 난방 시설을 갖춘 전용 교실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교 행사나 수업 시에 자주 대중 앞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여야 한다. 스즈키 교수법에서는 학생이 주 1회 이상 발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실태에서 학생들이 합주활동을 가끔 하거나 학교의 중요한 행사에서만 1-2회 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황 특기 적성 기악수업에서는 여전히 개인연주실력 향상과 진도를 이유로 합주 중심의 연주를 통하여 즐거움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자신감 증진과 실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학생들에게 자주 부여되는 프로그램 개발 되어야 한다.

2) 방학 중에는 레슨을 계속 많이 받고 있는 편이지만 잦은 결석으로 수업운영이 원활하지 않고 집중레슨으로 대처하여 줌으로써 학생들 실기 향상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는 쾌적한 교실 및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주도록 하며 특기 적성 교육이 규칙적으로 레슨과 연습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바이올린 지도교사의 교체유무를 묻는 질문에서는 없다(97%)로 대도시지역보다 교사 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과정 중에 교사

가 바뀌지 않으므로 학생들의 정신적인 안정이 유지되며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도 지속적인 것으로 평가 된다. 대도시지역으로 갈수록 지도교사의 교체가 많았음을 볼 수 있듯이 지도교사 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바뀌버리는 학교 측의 행은 곧 학생들의 학습에 악영향을 미쳐 바람 직 하지 않음을 교육담당자들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 2.바이올린 특기적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1)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의 시작 시기는 7-8세의 학생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입학 후 ,1년 후 9세 정도에 바이올린을 배우는 경우가 차 순위로 많았다. 이는 처음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배우기 시작하는 결과라 보여 진다. 또한, 부모들이 조기교육에 대한 인식을 하여 자녀의 재능발견과 음악적 경험을 높여 주기위한 목적으로 자녀들 입학과 동시에 특기 적성 교육을 시작하는 것으로 평가 된다.

스즈끼는 7세 이전,취학 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능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어린이의 성장과정에 음악적 환경을 제공하여 음악적 능력을 개발, 조기에 교육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과 공통점이 많았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시작시기에 얽매여 특기 적성 교육의 목적에 부합치 못한 의도를 가지고 교육에 임한다면 시작은 컸으나, 끝에서는 기대한 결과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여야 한다.

2)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에서 학생들의 동기는 좋아서 스스로, 부모님의 권유로, 타인의 권유 및 기타 순으로, 특기 적성 교육 선택에 본인의 의견이 중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권유와 기타 주위의 환경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동기와 더불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즐겁다 로 나타나 바이올린 특기 적성 수업은 대체적으로 즐거웠음을 시사하고 있다.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수업태도와 적극성이 지역에 따라 비율의 차이를 보이거나 대다수 수업 태도는 긍정적, 능동적이었다. 동기나 만족도는 높은 반면에, 연습시간은 배정,운영 하지 않거나 불규칙적 이었다. 합주가 개인 실기 연주보다는 좋다는 학생들의 인식을 받아들여 합주의 기회를

늘리고 이를 통한 단결력과 협동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올바른 연습방법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학생들에게 연주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을 수 있는 효율적인 수업내용과 적절한 교재 및 악곡선택, 올바른 연습 방법을 지도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다각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바이올린을 배우는 이유가 바이올린이 좋아서, 부모의 권유로,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친구들이 하나까 라는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면,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높은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반면 부모의 권유나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란 의견이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보아, 과거의 우리나라 입시 위주 음악교육의 영향이 아직도 학생들에게 인식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끝으로 교사는 각 학생의 참석 및 진행상의 변화와 부진한 영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레슨시간마다 평가 및 관찰내용을 수시로 기록하여야 할 것이며 학생은 능력 면에서 모두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교사는 늘 학생을 관찰하고 그의 능력을 파악하여 수준에 맞는 지도를 해야 한다. 교사는 개인의 흥미나 능력에 알맞은 지도내용과 교재를 준비하고 지진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 3. 제 언

첫째, 향후 연구에서는 음악 특기 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을 투입하여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아울러 양적 연구뿐 만 아니라 참여관찰, 면접들을 통한 질적인 연구들도 함께 수행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